



충남도 서해수산자원 지키기 나섰다

허승욱, 격렬비열도 전격 방문... 영해주권 강화 방안 모색

허승욱 충남도 정부부지사 수산자원 보호 및 해양관광 자원 개발을 위해 20일 충남 서해바다 최서단 격렬비열도를 전격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월부터 유인화한 등대 근로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해양영토 및 영해주권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에 따르면, 격렬비열도 인근 해역은 수산자원이 풍부한 황금어장으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고 있어 지난 6월 22년 만에 등대 유인화에 돌입했다.

여기에 최근 남중국해 등 국제 해양 영토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남 최서단의 격렬비열도는 국가영해 관리 차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섬 중 하나다.

이에 도는 서해 최외곽 전략적 도서로 격렬비열도를 연안항로 지정‧개발해 영토수호 체계를 확고히 하고 수산자원, 해상안전, 해양관광 개발의 보루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현재 20년 된 낡은 어업지도선을 오는 2017년까지 150톤급으로 대체해 어업지도 활동해역을 격렬비열도까지로 넓혀 어업지도 단속업무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허승욱 도 정부부지사는 이날 방문을 통해 태안 인흥항에서 55km 떨어진 작은 무인도서에서 등대 지키미로 근무하는 항로표지관 리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허 부지사는 태풍 등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있는 어민들

의 안전 확보를 위해 소규모 도서 지역의 지방어항에 대한 정비 상황도 꼼꼼히 점검했다.

도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합동으로 추진한 이번 방문을 계기로 격렬비열도 정책에 관한 관계 기관 간 공조·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허승욱 부지사는 "앞으로 해양수산 자원의 이용개발, 관광촉진, 인근 유·무인도서의 연계한 발전 방안, 해양생태계의 보전·이용 등 국가차원의 영해기점 도서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조치원 복숭아 홍콩 첫 수출 이춘희 세종시장이 20일 조치원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홍콩으로 첫 수출하는 조치원 복숭아를 둘러보며 웃고 있다. <관련기사 9면>

수능 모의평가 문제유출 교사 최대 파면·해임

교육부, 손해배상소송도 청구... 재발방지 관련법 정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 사전유출 사건과 관련해 향후 문제 유출이 벌어지면 해당 교사에게 자격을 배제시키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모의평가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들에게 대한 후속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6월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 유출에 관련한 교사는 최대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이번 유출·유포에 책임이 있는 교사와 학원 강사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에 따른 형사 책임 외에도 징계,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유출 또는 유포 행위를 한 교사, 교원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강사 자격을 배제하고, 학원에는 등

록 말소 또는 교습 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학원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6월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참여하고 출제정보를 유출한 교사 C와 이를 학원강사 A에게 전달한 교사 B는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영리행위금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발생했으므로 시도교육청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들 외에도 교사 B를 통해 지

속적으로 학원 강사 A에게 학원교재용 문제를 만들어주고 대가를 받았던 교사 6명도 영리행위금지의무 위반에 대해 시도교육청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징계책임 외에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유출·유포 교사 2명과 학원 강사에 대해 형사재판의 결과를 참고해 기관의 명예와 신뢰 등을 훼손한데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수강생에 출제정보 유출이 발생한 학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교습비가 교육청 등록 금액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을, 과태 또는 거짓광고가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수강생에 출제정보를 유출한 해당 학원에는 지도·점검을 해 교습비가 교육청 등록금액을 초과했거나 과태·거짓광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나 행정처분 등을 하기로 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도 정비된다.

교육부는 "이번 6월 모의평가 유출 사건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전국단위 시험의 보안 관리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유발하므로 수사 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 확보와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수능 및 모의평가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 '엉망'

안전처, 이행조치 결과 재확인 등 취약요인 지속 추적 관리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7일부터 13일까지 전국 20개 건설현장에서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해 지적사항 281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안전처는 이중 경미한 사항 98건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개선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183건은 해당기관이 조속히 개선토

록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 소관부처에서 추진 중인 건설현장 사고예방 대책의 현장관리 실효성뿐 아니라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사고'와 관련한 화기취급 및 가스, 위험물 보관·사용 실태 등에 대해서도 중점 확인·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 결과 안전보호구 미착용 등 기본수칙 미준수, 별도 안전조치 없이 유독물을 방치하는 등의 안전의식 문제가 상존했고 안전난간 미설치 등으로 추락·낙하 사고 위험요인과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미개선으로 같은 내용의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실태도 확인돼 벌칙 강화 등 관리주체의 책임성 강화 방안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점검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은 향후 이행조치 결과를 재확인하는 등 취약요인을 지속적으로 추적관리 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민병대 생활안전정착관은 "건설공사업장은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곳으로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안전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선 기자



예산군, '행복출새임양사업' 본격 추진 예산군이 '깨끗한 충남 아름다운 예산 만들기' 봄 조성 및 '청정 예산'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해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출새임양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전시 정무부시장에 이현주 氏 내정



대전시는 새 정무부시장에 대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으로 법무법인 새날로 대표 변호사인 이현주(57) 씨를 내정 발표했다.

이 내정자는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민선6기 시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간 외곽에서 시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시장과는 행정부시장 시절 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인연이 있으며, 법조계의 두터운 신망과 주변 추천, 무엇보다 행정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익힌 정무감각을 지닌 점이 내정 배경이라고 시관계자는 설명했다.

내정자는 현재 '법무법인 새날로'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시장은 물론 국무총리실, 법무부 등 다양한 행정활동에 전회력과 리더십을 갖춘 지역 일꾼으로 민선6기 후반기 시정을 차질 없이 견인하는데 적

격자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는 신원조회, 인사위원회의 등 절차가 마무리 되는 8월 초순경 이 내정자를 정무부시장에 임용할 예정이다.

한편 이현주 변호사는 제32회 사법고시 출신으로 1998년 3월 대전에서 변호사를 개업했으며 지난 2000년부터 2006년 8월까지 대전시 행정심판 위원회 위원, 2003년 10월~2006년 8월까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08년 2월~2014년 2월까지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등을 역임 했다.

이영호 기자

현대파워텍의 변속기 기술은 인간을 위해 헌신합니다

자동차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을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게 여는 것입니다. 변속기 역시 그 목표를 위해 헌신하여 왔습니다. 현대파워텍의 변속기가 탑재되었다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자동차의 '안전'과 '쾌락'에 대한 신뢰를 받고, 더 나아가 '승거'를 느끼는 행복한 자동차 여행을 창조하는 것. 그것이 현대파워텍의 인간을 위한 기술입니다.

<리얼미터> 8·15 특사 경제 포함, 찬성 27.6% vs 반대 60.6%

‘유전무죄 논란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므로 반대한다’ 의견 높아

국민 10명중 6명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경제인을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특별사면을 실시하겠다고 밝히며 대기업 총수 등 경제인을 사면대상에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8·15특사 경제인 포함 여부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유전무죄 논란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60.6%로,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한 다’는 의견 27.8%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11.6%.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는데, 특히 부산·경남·울산(찬성 32.0% vs 반대 64.6%)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광주·전라(22.5% vs 62.3%), 수도권(25.5% vs 62.0%), 대전·충청·세종(24.9% vs 58.7%), 대구·경북(38.7% vs 49.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반대’ 의견이 높았는데, 특히 30대(찬성 13.3% vs 반대 77.0%)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18.0% vs 71.8%), 20대(15.1% vs 64.5%), 50대(32.4% vs 63.0%) 순

으로 높았다. 반면, 60세 이상(찬성 53.4% vs 반대 32.8%)에서는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20.6%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찬성 5.5% vs 반대 94.5%)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13.4% vs 75.5%), 국민의당 지지층(26.0% vs 74.0%), 무당층(26.1% vs 48.7%) 순으로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새누리당 지지층(찬성 50.2% vs 반대 39.3%)에서는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10.9%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찬성 15.9% vs 반대 78.5%)과 중도층

(18.7% vs 76.0%)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보수층(53.4% vs 37.6%)에서는 ‘찬성’ 의견이 ‘반대’ 응답보다 15.8%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7월 1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45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67%)와 유선전화(33%) 임의전화걸기(RDD) 스마트폰 앱 조사 및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고, 2016년 6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응답률은 5.9%(총 통화 9169명 중 545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2%p.

이정복기자



충남도의회, 장애인 정책 연구모임 출범 충남도의회가 도내 장애인 정책을 되짚고, 기능과 역할 재정립에 나선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김연 의원을 대표로 한 ‘충남도 장애인 정책 연구모임’을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연구모임은 향후 도립장애인 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했다. 특히 포괄적인 장애인 정책을 점검, 문제점을 찾아해법을 마련하는 동시에 장애인 정책방향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발달장애인 자립 및 생활에 대한 방안 ▲장애인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도농 마을단위 복지 서비스 모형 발굴 ▲도립장애인 복지관 기능과 역할 재정립 ▲이동서비스 제도 개선 등을 연구한다.

“문화원연합회 육성과 재정적 지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

대전시의회 윤기식 의원 ‘문화원연합회 육성과 지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문화원 연합회 육성과 재정적 지원에 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자치구마다 각각 운영하고 있는 문화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 등이 가능할 전망이다.

역시 문화원연합회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문화원연합회는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와 역사인물, 전통문화 등을 발굴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었다”며 “문화원연합회의 역할과 임무에 걸맞은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원연합회의 육성을 위한 시정의 책무, 보조금 명목 및 용도에 관한 사항 등이 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문화원연합회가 지역문화진흥 사업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 등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지역 문화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세종시의회, 국회 세종분원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

제38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고준일 세종시의회 의장 비롯한 전(全) 의원 강력 촉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은 20일 오전 10시 제38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국회 세종분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고준일 세종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全) 의원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 도시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고, 정부기관 이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회 분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세종시에 국회분원 설치하는 행정기관의 단순한 이전

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유력한 대안이며, 향후에는 국회가 완전히 이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와 정부는 세종시가 행정중심 도시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고 정부기관 이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종시에 국회분원을 반드시 설치하라”면서 “국회와 정부는 세종시 정상 건설을 위해 국회 세종분원 설치를 국가 정책 공약으로 명문화하고, 국회와

정부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6월 20일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이해찬 의원의 국회 세종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안 발의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이해찬 의원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설치를 건의한 바 있고, 지난 제20대 총선에서 여야 공약으로 국회 분원설치가 발표된 바 있다.

세종=이정복기자

예산군의회, 10일간 일정으로 제223회 임시회 개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군정질문 실시



예산군의회의장 권국상은 2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23회 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시회 첫날인 20일은 개회식을 가졌으며 오는 21일에는 조례안 안전 심사 후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집행부 각 부서별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받고 군정에 관한 질문과 각종 조례안 및 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또한 그동안 추진해온 군정의 모든 전반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

음으로써 군정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산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심사할 예정이다.

권국상 예산군의회의장은 “동료의원들에게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심과 지도를 당부하고 집행부에는 성의 있는 보고와 답변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된 사항을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시정·반영하여 군

정발전과 주민 복리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예산=이상화기자

“한발교육박물관 자체 프로그램

학생들 참여 부족은 홍보부족”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병철)는 20일 대전평생학습관 등 4개 기관의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주요업무보고에서 구미경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대전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중학교 학력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질의를 통해 이 프로그램을 학사과정을 겪고 있는 예비중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해 주길 당부하였고, 아울러 조례로 제정한 성인식을 12월에 개최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의 검토를 요청했다.

김민식 의원(서구3, 더불어민주당)은 대전학생해양수련원에서 장애인과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특색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소외계층은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다양하므로 내년부터는 사업대상을 확대해 주길 당부했다.

윤진근 의원(중구1, 새누리당)은 대전한발교육박물관에 대한 질의를 통해 역사교육이 중요함에도 정작 박물관에서 자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는 학생들의 참여가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그 원인 중 하나가 홍보부족이므로 앞으로 박물관 홍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현영 의원(대덕구2, 새누리당)은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의 해양활동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을 철저하게 할 것, 한발교육박물관이 보유한 유물에 비해 전시와 보존공간 매우 협소하므로 장기적으로 박물관 이전에 대한 검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환기자

‘화력발전 미세먼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

당진시의회,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즉각 철회 촉구

당진시의회 의장 이종윤은 지난 20일 제38회 정례회에서 안효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력발전 미세먼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안효권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화력발전 및 각종 산업단지에서 생성되는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라며 “화력발전소가 집중된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전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400만kW의 당진화력, 140

만kW의 GS발전소, 80만kW의 현대그린파워 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고, 당진화력 200만kW, GS발전소 103만kW, 당진에코파워 116만kW 규모의 화력발전 시설이 각각 증설되고 있거나 계획되어 있으며 현대철을 비롯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대규모 사업장이 우리지역에 밀집돼 대기 오염물질 발생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감사원의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감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충남지역의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로

인하여 수도권 대기환경에 최대 28%까지 영향을 준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에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은 중앙정부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행정부차원의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증설 철회, 환경영향평가 강화와 자치단체 의견 반영 의무화,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 역할조사와 화력발전 지역주민시설에 표준세율을 원자력발전 수준 이상 상향 조정을 촉구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양승조 의원 ‘모유은행 설치’ 위한 모자보건법 발의

“영아사망률은 줄이고! 출산율은 높이고!”

양승조 국회의원이 ‘모유은행 설치’ 근거를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에 발의했다. 이번 법안을 통해 모유를 수유할 수 없는 보호자에게 안전한 모유를 공급하고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유수유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영양학적, 면역학적, 감염학 교육박물관이 보유한 유물에 비해 전시와 보존공간 매우 협소하므로 장기적으로 박물관 이전에 대한 검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환기자

그러나 현재 한국 여성의 완전 모유수유율은 32.3%로(2013년 보건사회연구원 발표) 미국 52%, 일본 45%, 유럽 75%, 스웨덴 90%, 덴마크 9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산모의 체력적인 부담은 물론, 모유가량이 너무 높아 모유가 시급한 산모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해 수유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또한, 최근 인터넷에서 모유가 거래되는 사례가 늘면서 감염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현실이다.

양승조 의원은 “이미 덴마크,

독일, 영국 등 많은 선진국들이 모유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한 모유공급을 통해 영아의 이환율과 사망률 저하시키고 저출산 대책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모유은행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또한 “그동안 복지부는 모유은행 설립을 위해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였을 만큼 관심이 많았다. 복지부와 논의해 국가가 지원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모유은행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김병욱, 김정우, 민병두, 박남춘, 송옥주, 안구백, 오세재, 윤소하, 정성호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천안=김정환기자

충남 도민 눈높이에 맞는 소방 서비스 제공 주문

충남도의회 인건해수위, 소방본부 소관업무보고에서 당부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20일 열린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도민 눈높이에 맞는 소방 서비스 제공을 주문했다. 또 완벽한 화재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도민 재산과 생명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맹정호 위원장(서산1)은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직업이 소방공무원으로 꼽혔다”면서도 “소방공무원의 근무 만족도는 매우 낮다.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이환 위원(서천2)은 “유형별 화재 등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력 정비 등이 잘 되어 있다”며 “일반 사고에 대해 유형별로 매뉴얼을 작성하고, 관련 부서와 연구·검토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치연 위원(계룡)은 “여름철이 가장 존경하는 직업이 소방공무원으로 꼽혔다”면서도 “소방공무원의 근무 만족도는 매우 낮다.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 달라”고 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은 “소방복 합시절 최종 입지 선정관 관련, 도유지 활용 방안 검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낙은 위원(논산2)은 “소방공무원의 업무 중 발생하는 PTSD(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한 지속적인 이적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직원 힐링배낭연수 등 지원 확대를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은 “무인텔 화재에 대한 안전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건축허가 시부터 관련 부서와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유찬종 위원(부여1)은 “초고층 건물에 대한 화재 등 대응대책에 대해 자세한 도민 홍보가 필요하다”며 “고층 밀집화가 확산되는 천안·아산지역은 추가 장비 보강 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정복기자

세월호 기억 노란우산 프로젝트

7월23일,세종시 해양수산부 뒤 소리동선에서 열려

7월 23일 토요일 오후 5시 ~ 7시, 세종시 해양수산부 뒤 소리동선에서 노란우산 프로젝트 퍼포먼스 행사가 개최된다.

세종시의 한 시민이 세월호 기억행동 노란우산을 판매하면서 시작된 노란우산 프로젝트가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노란우산 프로젝트 기획자 서영석씨는 “가슴 속에 세월호 진심을 향한 열망을 표현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견디고 계시는 유가족 분들과 진실이 왜곡되는 상황으로 인해 점점 무관심해지는 세상을 향해 ‘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고 항의도, 원망도 아닌 간절함을 하나의 노란우산에 담아 세상 앞에 알리고 싶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세월호 기억 노란우산 프로젝트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게 위로와 응원을 표하는 시민들이 지역 단위로 모여 세월호 기억 노란우산을 펼쳐둔 장면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긴다. 이러한 과정들은 영상물로 제작되어 희생자 가족들에게 전달되며 온 국민의 진실 요구의 열망을 표현하여 배포될 예정이다.

세종=이정복기자

여름 휴가철 렌터카 사고 급증

불쾌지수 80이상 '매우높음' 단계이면 교통사고는 13% 증가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이 최근 5년간(11~15년) 여름 휴가철(7월 16일~8월 31일)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하여 휴가철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수칙을 발표했다.

여름 휴가철엔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616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13명이 사망하고 956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2분 20초마다 한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여행객이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엔 특히, 렌터카 사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름 휴가철(16.8건/일)이 평상시(14.5건/일)보다 약 16% 많았고 특히 20대 운전자에 의한 렌터카 사고(34.9%)가 더 연령대에 비해 높은 사고율을 나타냈다. 렌터카는 특성상 낯선 지역을 운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운

전경험이 적은 20대는 더욱 차분하고 신중한 운전이 요구된다.

여름 휴가철엔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 불쾌지수*가 높은 시기로 불쾌지수가 높았던 날이 낮보다 교통사고 위험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불쾌지수가 '매우 높음' 단계(80이상)일 때는 그보다 낮은 단계(80미만)에서 보다 교통사고가 약 13% 더 많이 발생했다. 불쾌지수가 높을수록 젊은층 교통사고 비중(30.9%)이 80미만인 날(27.7%)보다 3.2%p 높았다.

일상을 떠나 긴장이 풀어지는 여름 휴가철엔 음주운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로 음주운전 사고는 밤 10~12시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낮 시간대(12~18시)의

경우 음주운전사고 비중(13.0%)이 평상시(11.4%)보다 높은 특징을 나타냈다. 장마의 영향권에 있는 여름 휴가철엔 빗길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율(11.6%)이 평상시(8.0%)보다 약 3.6%p 높은 만큼 집중호우 시 감속운전과 충분한 안전거리유지, 비상등 점멸 등을 통해 교통안전운전을 확보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박기수 센터장은 "여름 휴가철엔 더운 날씨와 들뜬 기분으로 인해 안전운전의 무를 소홀히 할 수 있으므로 운전경력이 비교적 짧은 20대 운전자는 차분하고 침착한 주의운전이 요구되며 음주운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아울러 고온다습한 날씨로 불쾌지수가 높은 여름철에는 신선한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규칙적인 휴식과 여유있는

마음으로 안전운전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농협창조농업지원센터 개원식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영)는 20일 농립축산식품부장관,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및 의원, 벤처농업인, 농민단체, 대학생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조농업을 통한 농업의 미래를 열어가길 '농협창조농업지원센터' 개원식을 개최했다.

『농협창조농업지원센터』개원식은 ▲설립경과보고 ▲대통령 영상 메시지 ▲업무협약식 ▲제막식 ▲직파재배 전시, 농업용 드론 시연 ▲미래농업 전시시설 관람 ▲창업·금융·판로지원 상담 ▲6차산업 현장리더 교육과정 참관 ▲한경대 디자인학과 학생들의 디자인 창작시연 ▲농업인·크리에이터 김락훈 셰프와 함께하는 팍도푸드쇼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 날 개원식에서 농협중앙회는 창조농업확산을 위해 농촌진흥청(이양호 청장), 한경대학교(태법석 총장) 등 17개 창조농업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창조농업지원센터 운영프로그램 공동 발굴 및 추진 ▲농식품 분야 특허 기술을 사업화하는 농업인·농산업체에 기술금융·유통·판로지원 등 농식품 벤처창업 원스톱 지원 등을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병영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창조농업지원센터』는 농업분야의 새로운 가치와 기회를 만들고, 농식품 아이디어 허브와 창조농업의 요람으로 자리 잡아,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의 첨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병배 기자

죽암 휴게소 23일 그랜드 오픈

계룡그룹의 자회사인 계룡산업에서 운영 중인 죽암(부산방향)휴게소가 45일간의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7월 23일 새롭게 문을 연다.

이번 휴게소 리모델링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운전의 피로를 풀고 다양한 먹거리와 편의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죽암휴게소 측은 지난 6월 9일부터 진행된 공사기간동안 휴게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임시식당과 임시 화장실 관리에 주력하였고, 다양한 경품 이벤트를 통해 방문객의 즐거움을 높였다.

새롭게 단장한 죽암휴게소는 건물 내외부를 현대적인 느낌으로 리모델링하고, 휴게소 방문객들의 재방문 의사를 높이기 위하여 스마트미러,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 패널과 같은 최첨단 시설을 화장실에 적용했다.

또한, 전문성과 인지도가 높은 외식업체들을 적극 입점 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한국도로공사 최초로 '롯데리아 드라이브스루(Drive Thru)'를 죽암휴게소에 유치하는 쾌거도 이뤄냈다.

휴게소 외부에는 이용객들이 편하게 쉬 수 있는 넓은 테크와 파라솔, 케노피를 설치하였고, 내부에도 다양한 크기의 테이블을 배치하여 개인이나 단체여행객들이 편하게 쉬 수 있도록 배려했다.

계룡산업 관계자는 "다년간 휴게소 운영을 통해 획득한 노하우와 최신식 시설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선 기자



충남 특화 마리나 개발 '밈그림' 나왔다

중국루트 등 28개 뱃길도 개발...충남레포츨드림라인 구축

충남 당진 외곽·장고항과 서산 장리, 보령 원산도에 200척 이상 대규모 마리나항만을 조성하는 등 서해 6개 시·군에 총 1400척 규모의 마리나 10개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배경으로 대형 조형물을 설치해 랜드마크화 하고, 중국과 가장 가까운 잇점을 활용해 유류 유지를 위한 차이나스트리트도 건립한다.

◆ 서산 장리 마리나 '위그선' 투입

서산장리 마리나는 '고급 레저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한다. 3000여 규모의 장리 마리나에는 청소년들이 해양레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종합센터를 건립하고, 우리나라 천문과학의 선구자인 류방택 선생 출생지인 점을 감안해 별빛 체험 공간도 조성하며, '달 재즈 페스티벌'도 개최한다.

장리 마리나에는 특히 최대 시속 200km로 해수면을 떠서 달리는 선박인 '위그선'을 투입, 해양레저 활성화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모색한다.

2000여 규모로 조성하는 보령 원산도 마리나는 '키즈 플레이 파크'와 '지중해 거리' 등을 설치하고, '섬 생활 체험 여행학교', '바다학교'와 같은 관광 상품도 개발·운영한다.

이와 함께 보령 무장포(100척)는 '젊은이의 해방구'로, 서천 흥흥(100척)은 '해양 생태·문화 교류 거점'으로, 태안 안흥(100척)은 '충남의 관문'으로 마리나 레포츠 파크와 카리반 캠프, 빛의 거리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홍성 남당 55척, 보령 요트경기장 50척, 서산 삼길포에는 1600여 규모의 마리나를 조성한다.

◆ 중국 관광객 겨냥, 3개 뱃길 연결
이번 구상에는 국내·외 뱃길 연결 방안도 포함됐다. 중국 관광객을 겨냥한 항로는 3개 3617km로, 정도 1000km와 다련 961km, 항저우 1656km 등을 충남 최서단에 위치한 격렬비열도와 연결한다.

각 루트는 중국 요트 클럽 및 산업계와 연계 체제를 구축해 개선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국내는 원산도~외곽~전국

항~인천항 188km를 잇는 경인권 뱃길과 원산도~적포항~목포항을 연결하는 전라권 루트로 나뉜다.

도내 마리나 간 뱃길은 북부 10개 538.4km, 중부 6개 302.2km, 남부해상 루트 7개 499.8km 등이다.

◆ 3대 목표·6대 전략·18개 과제 설정

마리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개발·연대·통합', '경제·도약·선도·교류', '문화·연계·상생·지속' 등의 키워드를 토대로 '충남 레포츠드림라인 조성'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목표는 △아시아인의 교류 거점 △함께 공생하는 지역 발전 △지속가능한 마리나 산업으로 추진 전략은 △고부가가치 모델 창출 △글로벌 네트워크 조성 △융합 발전 표준 만들기 △독특한 콘텐츠 브랜드 △수용태세 개선 △마리나 시장 점진적 육성 등으로 잡았다.

전략별 추진 과제로는 △문화화재 시설 명품화 △항만 구역 미화화 △독특한 해안·도시 콘텐츠 육성 △이벤트·축제의 상시화 △해안레저 프로그램 보급 활성화 △해양레저 전문인력 체계적 양성 △유망 R&D과제 발굴 및 육성 △창업 기반 구축 및 활성화 등을 세웠다.

도는 앞으로 이번 구상을 토대로 외곽 마리나 민자 개발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안흥 마리나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을 수립하는 등 단계적으로 개발을 추진해 나가기 방침이다.

정낙준 도 해양정책과장은 "마리나는 고급 레저·스포츠로 수요가 아까까지는 일부 계층에 국한돼 있고, 중앙부처 투자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미래 성장 동력 육성 차원에서 투자 기반 다양화를 위한 수요자 대응형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 바란다"라며 "이번 구상은 체계적이고 특색이 된 마리나를 조성하는데 지침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한 기자

행복도시 세종 최첨단 스마트 안전망 구축

사회적 약자 보호 연계시스템 구축·시범사업 추진 MOU 체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종재, 이하 행복청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에스케이(SK텔레콤) 등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연계시스템 구축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20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 보호 연계시스템"이란 아동·여성·치매환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위급한 상황(실종,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도시내 방범 및 교통 상황을 관제하는 도시통합정보센터(이하 통합센터)에서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위치, 사진정보 등을 제공받아,

통합센터에서 관제하는 폐쇄회로(CCITV)로 현장상황을 실시간 파악 후 경찰·소방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국내에서는 최초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가 안양시, 오산시와 함께 구축·운영되게 된다.

현재는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가 휴대폰 등으로 위급상황을 인지 후 경찰서나 소방서에 직접 신고토록 운영되어 왔으나,

이번에 구축되는 "사회적 약자 보호 연계시스템"은 위급상황 발생 시, 도시통합정보센터에서 통신사로부터 위치정보, 사진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경찰서나 소방서를 통해 즉각적인 상황대응이 가능하도록 도시통합정보센터와 통신사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행복도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도시 계획 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도시시설계획, 즉 셉티드(CPTED)를 도시전역에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하반기에는 세종시 새마을(2-2생활권) 일대를 대상으로 기존 셉티드 계획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안전특화시범가도" 사업을 추진할 예정

이다.

또한, 도시전역에는 양방향 비상통화가 가능한 고성능의 다목적 방범폐쇄회로(CCITV/야간촬영, 200만화소, 비상벨 등)를 설치하고 있으며, 국도 1호선 등 행복도시 주요 진입로에는 차량번호 인식이 가능한 폐쇄회로(CCITV)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전월산과 원수산에는 산불감시용 열영상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도시를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전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박희주 행복청 도시공간정보팀장은 "이번 사회적 약자 보호 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행복도시가 마음 놓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도시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관련 기관들과 상호 협력하면서 행복도시의 안전망을 견고히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정복 기자



온양남성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이어져 귀감

해산 결정에도 '국민안전' 구슬땀

온양남성의용소방대(이하 의소대)가 지난달 24일자로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해산과 대원들 면직 통보에도 개의치 않고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심폐소생술 등 봉사들이 어가고 있어 귀감이다.

20일 의소대 관계자에 따르면 "현 해산결정 통보 상황분보 20일 3년 참조과 무관하게 지난 5월부터 오는 10월말까지 실시중인 아산시민과 함께하는 심폐소생술과 소화기사용법의 안전교육을 위해 매주 10여명의 대원이 자발적으로

교육장에 참석해 구슬땀을 흘리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해산 통보 이후 대원들은 현재 정식제복을 착용하지 못하고 사비를 들여 단체를 입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 홍보 현수막역시 의소대 해산으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해 대원들이 자체 제작해 기존의 현수막위에 내걸어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과거 의소대 선배들은 화재가 발생하면 생업을 중단하고 즉각 출동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왔으며 다치거나 목

숨을 잃은 대원들도 있었다."며 "광복 다음해인 1946년 창립때 오는 9월이며 70주년을 맞이하는 의소대의 전통과 역사를 지키고, 70년간 이어져온 선배대원들의 봉사정신에 보답하고자 의소대의 부활을 위해 다 방면으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시 남성의용소방대는 그간 아산 전통 상설시장 소방통로 확보현과 여름철 수상 안전현과 근무, 시민들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및 연탄누기 지원사업, 취약계층에 소화기 배치, 각종행사 지원 및 화재예방 교육 등의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아산=리량주 기자

아산충무병원 보훈 의료위탁 병원 지정



의료법인 영서의료재단 아산충무병원(이사장 이지혜)이 충남지역 '보훈의료 위탁병원'으로 지정

됐다. 아산충무병원은 다음달 13일부터 대전지방보훈청과 '보훈의료 위탁병원' 지정에 따른 협약

을 체결, 보훈의료 대상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시작한다. 보훈의료 지정진료과목은 신경외과, 정형외과, 내과를 포함한 16개 진료과를 진료받을 수 있으며, 보훈의료 대상자는 보훈의료카드를 지참해 진료를 접수하면 된다.

한편 보훈의료 위탁병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아산=리량주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 천안출장소 신설

수출금융의 양대 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업무, '한국무역보험공사' 업무 모두 천안에서 가능

오는 8~9월경 한국무역보험공사 천안출장소가 개소할 것으로 보여 천안·아산지역 수출기업들의 숙원인 무역보험관련 업무이용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의 2015년 기준 수출규모는 약 652억 달러로 전국 3위이며 그중 충남서북지역(천안, 아산, 서산, 당진시)의 수출규모는 충남·대전권 전체 수출액 대비 91.3%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수위의 수출규모에도 충남에만

수출지원 기관(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지사가 없어 도내 많은 수출기업이 대전지사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과 시간적 기회비용을 낭비했다.

천안시는 이같은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수출금융양대 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천안지점'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천안지사' 설치를 위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지역 국회의원 등과의 공조하에 중앙부처에 건의해 왔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지난 2월에는 '한국수출입은행 천안지점'에 직원 2명이 추가 배치되어 여신업무가 개시되었고, 이번에 '한국무역보험공사 천안출장소'를 신설하게 됐다.

현재 7월 1일자로 천안출장소장이 발령되어 업무준비 중에 있으며 근무인원은 소장을 포함한 3명 정도 예정이다. 이들은 천안, 아산지역 50여개 수출관련 업체 및 3600여개 배후 제조업체에게 수출보험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이번 천안출장소 설치의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및 축소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얻어낸 결실이어서 매우 뜻깊은 성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김기태 지역경제과장은 "수출입금융의 핵심부반인 '여신' 업무와 '보험' 업무를 천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수출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며, "이로써 천안은 한층 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게 됐다"고 밝혔다.

천안=김정환기자

아산시 이삭거름 적기시용 중점 지도

농업기술센터, 고품질 쌀 생산·벼도복 예방 위해

아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는 고품질 쌀 생산 및 벼도복예방을 위한 이삭거름 적기·적량 시비 중점 지도를 추진한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이삭거름은 이삭거름 25원 전(전리인) 길이 1~15mm)에 주는 것이 가장 적당하며 중간생종(세누리벼, 황금누리벼, 새잎미벼)은 7월 21일~25일, 삼광벼의 경우는 일찍 주게 되면 벼 마디 생장으로 인해 도복 위험성이 커져서 조금 늦은 7월 28일~8월 1일 사이에 주는 것이 좋다.

사용량은 이삭거름(N-K복합 18-0-

18)기준으로 12~14kg/10a 사용하며 잎색이 짙은 논은 엷화거리 비료량 3~4kg/10a 주어야 병해충 및 도복피해를 줄일 수 있다.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일조량으로 벼 출수가 1~2일 정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를 감안하여 시용시기를 산출했으며, 홍보 리플릿 제작·배부 및 현지 지도를 통해 이삭거름이 적기에 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서천군 통합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20일 서천군 종합교육센터에서 희망복지지원단 공무원과 통합사례관리사 등 25명을 대상으로 민원회 한국사물관리연구소장을 초청해 통합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읍면사무소와 관내 사회복지기관 등 복지업무에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업무 담당자에게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 통합사례관리 실천방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두 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는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자를 사례관리자가 지속적인 책임을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니터링하는 수행기법을 보다 구체화 했으며 바람직한 사례관리를 위한 기관의 필수요건 등을 상세한 예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사례관리의 이해를 높였다.

허수자 희망복지팀장은 "소외계층 발굴과 연계해 통합 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군은 7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서면사무소에서 실제 상담사례 공유를 통한 슈퍼비전을 진행하는 등 사례관리에 대한 다양한 적용방안을 교육할 예정이다.

서천=김태선기자

“예비 귀농귀촌인 여러분 청남면민이 돼서 만나요”

천안연암대학교 귀농교육생 청남면 방문



천안연암대학교 귀농지원센터 22기 도시민 창업 과정 교육생 30여명은 지

난 19일 청양군 청남면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1시간여 동안 성공적 귀농귀촌 정착방안을 주제로 강담회를 가졌다.

이날 청남면을 방문한 교육생들은 6월부터 두 달간 과정을 이수중인 예비 귀농귀촌인으로 토마토농장, 별꽃농장 등 현장견학을 실시하기도 했다.

황희선 면장은 강담회에서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원주민들과의 옹호 방안과 청남면의 수박, 멜론, 토마토 등 원예특작분야 생산기반의 우수성 등에 대해 홍보했다.

황 면장은 "청양의 귀농정착을 잘 이용하고 연암대학교에서 받은 교육을 직접목시한다면 제2의 인생설계가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청남면민으로 다시 불러올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천안지사·아산시에 후원금 전달



한국주택금융공사 천안지사(지사장 김익수)는 7월 19일 아산시 행복마을지원단에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후원

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세용)에서 진행하는 독거노인

세대 선종기 지원사업 비용으로 사용되어 30여명의 취약계층 독거어르신들이 혹서기 더위를 이겨내는데 도움을 주게 되었다. 김익수 지사장은 "무더위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적시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 우리 공사는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주택연금 등 내집 연금 3종 세트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어르신들이 상담 받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연금 3종 세트란 정부 3.0 추진 과제 중 하나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의 일환으로 만 60세 이상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평생 거주하면서 매월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을 지급 받는 제도이다.

아산=리량주기자

외국인유학생 활용한 마케팅으로 세계시장 진출

대전충남중기청-대전시-대전경제통상진흥원 협업

중국, 베트남 등 제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전·충남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통·번역, 현지 시장조사 등 기업에서 요구하는 해외마케팅 수행에 나서 수출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인섭)은 지난해에 이어 외국인 유학생을 중소기업에 파견해 Alibaba 등 e-market Place 등 록 지원, E-bay, Taobao 등 온라인 쇼핑몰 입점지원, Wechat 등 SNS를 활용한 현지 소비자 온라인 홍보 활동 등을

수행토록 지원한다. 급변하는 대전시 및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과 협업을 통해 참여 기업수를 대폭 확대(10개사 → 30개사)했고, 중국인 유학생 뿐만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타 국가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국 시장개척을 위한 현지 수출로드쇼 개최시 파견된 유학생이 참여기업과 동행해 제품 프리젠테이션과 구매력이 높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 등 실질적인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송병배기자



서산시농업경영인 가족화합대회 '성료'

제25회 농업경영인 가족화합대회가 20일 서산시 농어민 문화체육센터에서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한국농업경영인 서산시연합회(회장 조정수)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에 900여명의 회원 및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농업경영인회 중앙회장을 비롯해 서산시장 등 각급 기관단체장의 농업·농촌 발전 유공자 29명에 대한 표창식이 있었다.

또한 읍면동별 승부차기, 투호, 제기차기 등 화합경기와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참석자들의 많은 호응

을 얻었다. 조정수 회장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우리 농업과 농촌, 농업인의 발전을 위하여 온 정성을 다해주시길 것이라 믿는다."며 "우리 농업인도 'હે프는 서산, 행복한 서산'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농업은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농업경영인 여러분의 의지와 지혜를 모으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1회 가격으로 최대한 입이 개채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투데이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전북부새마을금고 이사장 전 영근

대전·충남안보협의회 회장 임 용 호

부가세 신고창구 방문 현장소통

최진구 대전지방국세청장, 애로 사항 직접 듣는 등 소통 시간



최진구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가 진행 중인 일선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납세자로부터 애로 사항을 직접 듣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19일 오전 대전세무서(서장 강종훈)를 방문하여 청사 1층에 마련된 전자신고창구를 둘러 방문 납세자들의 신고상황을 살피고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는 직원들과

과 대학생 도우미들을 격려했다.

최진구 청장은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하되, 방문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정성을 다해 도움을 주고,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따뜻한 세정지원을 당부하였다.

박봉관기자

아산시 혁신교육 시책의 하나 '아산시민참여학교'

오리엔테이션 가져 '시민강사 활동준비'



아산시는 혁신교육 시책의 하나인 '아산시민참여학교'의 오리엔테이션을 지난 19일,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스마트홀에서 진행했다.

아산시민참여학교는 학부모의 의식변화와 교육역량을 강화하여 청소년 현장체험활동 지원을 통해 아산교육의 변화를 선도하는 교육공동체이며, 지자체·교육청·학교·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간 상호협력력을 통해 온 마을을 학교로 만드는 협업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행사에는 복기왕 아산시장, 현재규 전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자, 학부모, 교사 등 120여명이 참석해 '아산시민참여학교'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한 점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운영하게 되는 아산시민참여학교는 현재규 전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명예교장으로 활동하게 되며, 학부모와 교사는 앞으로 진행될 학부모 교사 연수를 통해 역량을 강화해 시민사업 운영 초등학교를 선정 후 탐방학교를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복기왕 아산시장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육성하기 위해 아산시민참여학교를 마련했고 학부모가 변화해 아이들이 변한다"며 "지속적인 학부모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aT 농식품유통교육원 Youtube 공식 채널 개설

"손바닥 안에서 배우는 미래농업 경쟁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유통교육원(원장 조혜영)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YouTube)에 'aT 농식품유통교육원' 채널을 개설하고 농식품유통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식품 및 유통교육 동영상 강의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

aT 농식품유통교육원의 유튜브 채널 개설은 시간과 거리의 제약으로 인해 교육원의 강의를 접하기 어려웠던 이들의 교육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유튜브에 교육원 강의 영상이 새로 게시될 때마다 기존 aT 페이스북에도 내용을 함께 홍보해 교육 파급효과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농식품유통교육원은 이번 유튜브 채널 구축을 통해 식품과 유통교육뿐만 아니라 관련 행사 및 사업 소개와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누구에게나 제공함으로써 미래 농식품산업 인재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송병배기자

58개 제품 항균필터서 독성물질 IT 방출

환경부, 공기청정기·차량용 에어컨 등 유해성 평가 결과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공기청정기, 차량용 에어컨 내 OIT(2-Methyl-3(2H)-isothiazolone) 옥틸이소티아졸론을 함유한 항균필터에 대해 유해성을 평가한 결과, 제품 사용과정에서 OIT가 방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즉시 제품명을 공개하고 회수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월 일부 언론에서 차량용 에어컨과 공기청정기에 쓰이는 항균필터에 유독물질인 OIT가 함유되었다고 보도되는 등 항균필터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

을 감안하여 신속히 조사·평가팀을 구성하고, 즉시 유해성 평가에 착수하였다.

안전성 검증을 위해 가정용 공기청정기 필터는 실험챔버(26m3)에서, 차량용 에어컨 필터는 실제 차량에 장착한 후 기기를 가동하여 사용 전·후 OIT 함량을 비교·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5일간 가동한 공기청정기 내 필터에서는 OIT가 최소 25%~46%까지 방출되었고, 8시간 가동한 차량용 에어컨 내 필터에서는 최소 26%~76%까지 방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험 전·후 필터 내 OIT 함량

비교·분석결과를 적용하여 유해성을 평가한 결과, 일부 공기청정기와 차량용 에어컨 내 필터에서 유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실험 과정에서 공기 중의 OIT를 포집하여 분석한 결과 OIT가 미량 검출되었는데, 이 경우 유해도가 높지 않아 방출된 OIT가 실제 인체로 얼마나 흡입되는지 여부는 학계, 전문가 등과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필터 사용과정에서 OIT가 방출되는 것이 확인된 만큼 사전 예방적 조치로서 선제적으로 논란이 된 제품명을 공개하고

관계부처 공동으로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에 따라 회수권고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OIT가 아닌 항균물질로 처리한 필터에 대해서도 자진 수거 등 선조치 후 안전성 검증에 신속히 착수할 예정이며, 차량용이 아닌 가정용에어컨에 대해서도 필터 내 성분을 조사하는 등 안전성 검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품 내 사용되는 항균필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정환기자

세종시 '기업소통관'

본격 운영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206개 기업을 대상으로 경제산업국 직원 85명으로 구성된 '기업소통관'을 본격 운영한다.

'기업소통관' 제도는 세종시 공무원과 관내 기업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소통관의 주요 역할은 ▲현장방문을 통해 애로·규제사항 등 파악 ▲정부·세종시의 기업지원시책 안내 ▲국·내외 최신 경제동향 제공 ▲시책 건의사항 발굴 및 민원발생시 담당부서 안내 등이다.

'기업소통관'은 현장방문을 원칙으로 하여 행정기관의 문턱을 더욱 낮춘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정환기자

관세청-특허청-기업 함께 우리 브랜드 보호한다

K-Brand 보호 위한 관세청-특허청 제2차 정책협의회 개최

관세청과 특허청은 7월 2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16년 제2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중국, ASEAN 등 해외에서 한국 브랜드(K-Brand) 보호를 위한 상반기 상호 협력 활동의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을 협의했다.

양 기관은 올 상반기 ▲위조상품의 해외유통 확산방지를 위한 기업과의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세관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현지 세관원 대상 위조상품 식별교육, 초청연수를 통해 K-Brand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다.

올해 2월 수출기업이 참여한 "K-Brand기업 협의체"를 구성하

고 동 협의체를 통해 수렴한 우리기업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지난 4월 중국, 홍콩 세관당국에 전달하여 K-Brand 위조상품에 대한 적극적 단속협력 약속을 얻어낸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중국, 홍콩 세관원 초청연수를 실시하여 K-Brand를 홍보하고, 각국의 지적권 보호 현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이달 6일과 7일에는 K-Brand 협의체의 5개 기업이 중국 광저우와 황푸세관에서 세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K-Brand 위조상품 식별 교육을 성황리에 진행하였다.

* 삼성전자, LG전자, 현대모비스, 아모레퍼시픽, 도부코 교육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는

"이러한 교육이 세관 담당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K-Brand에 대한 적극적인 지적권 보호조치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올 하반기에도 우리기업들과 협력관계를 토대로 K-Brand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기로 했다.

우선 지난해에 이어 올 하반기에도 2차로 미국·유럽·일본 등의 세관 지적권 등록제도에 대한 책자발급 및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태국·베트남 공무원 초청연수를 실시하여 우리 기업을 홍보하고 해외 위조상품 식별교육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태국 등 ASEAN 지역 세관과도 정부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봉관기자



한남대, 고3 대상 청렴 모의전형



한남대는 고3 수험생들의 대입전형 공평증진을 위해 19일, 20일 이틀간 청렴모의전형을 실시했다.

대전지역 인근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청렴모의전형은 사전신청을 한 1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한남대는 입학사정관과 교수위원 4명 등 총 47명이 직접 참여해 심층 모의면접을 진행했다.

이번 모의전형은 수험생들이 원서접수 후 실제로 겪을 면접 전형에 대한 공평증과 불안감을 해

소시켜 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한남대의 실제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전형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구성되어, 면접위원 2인이 수험생 1명을 20분간 면접 후 1분간 피드백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남대 정중영 입학홍보처장은 "대입 전형 중 면접비중이 높고 있어 모의전형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수험생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KT&G, 신인 뮤지션 지원 '밴드 디스커버리' 참가자 모집

KT&G가 신인 뮤지션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 '2016 밴드 디스커버리'의 참가자를 8월 22일까지 모집한다. '밴드 디스커버리'는 숨겨진 실력과 음악성을 발굴해 그들이 자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KT&G가 문화예술 지원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첫 회 우승팀 '썬애플'은 지난 6월 전국투어 콘서트에서 티켓 오픈과 동시에 전 공연 매진을 기록했으며, 2014년 우승팀 '맨(MAAN)'과 지난해 우승팀인 '57' 또한 탄탄한 라이브 실력으로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다.

참가자격은 정규 음반을 발매하지 않았거나 1집까지 발매한 뮤지션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접수는 웹사이트(sangsangking.com)에 밴드 소개와 함께 심사를 위한 동영상 또는 음원 파일을 등록하면 된다.

전문가 평가와 네티즌 추천으로 6팀이 1차로 선발되며, 오는 9월 4일 KT&G 상상마당 라이브홀에서 열리는 파이널 콘서트에서 최종 3팀이 선정된다.

최종 선발된 3팀에게는 총 상금 1,100만원이 수여되며, 상상마당 라

이브홀 및 라이브 스튜디오 이용 등 혜택이 부여된다. 특히 오는 10월 KT&G 상상마당 춘천에서 개최되는 '2016 상상실현 페스티벌'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KT&G 관계자는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밴드 디스커버리'는 그동안 많은 신인 밴드들에게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다"며, "KT&G는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신진 아티스트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성기자

대전대 도서관도서관 오픈 액세스 리포지터리 지정

국립중앙도서관 주관 '2016 오픈 액세스 코리아(Open Access Korea) 리포지터리 보급기관'



대전대학교(총장 임용철) 도서관서관(관장 박광기) 교수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주관하는 2016 오픈 액세스 코리아(OAK, Open Access Korea) 리포지터리 보급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대전대학교 도서관서관(이하 '대전대학교')은 그동안 축적된 자료를 비롯하여 연구성과물과 대학에서 발행되는 간행물 등을 국제표준규격에 맞게 서비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평가와 함께 대학과 연구기관에 자료를 공유하는 등 연구 서비스를 선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올해는 대전대학교 도서관서관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5개 기관만 선정되었으며, 이는 충청권 대학에서는 KAIST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정복기자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오픈 액세스 리포지터리 보급기관'은 올해 선정된 5개 기관을 포함해 총 41개 기관이며 이중 10여개 대학 도서관이 포함되어 있다. 대전대학교는 대학의 특성에 맞게 한의학을 중심으로 한 우수한 연구결과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술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이라는 OAK 정책에 부응하여 정책 활용도를 높인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정부 3.0정책과 가장 부합하는 OAK 리포지터리는 국내 공공기관, 연구소, 정보센터 등에서 생산한 학술 성과물을 국제표준규격에 맞춰 체계적으로 수집·보존·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전자서고다. 이에 따라 대전대학교는 오는 9월 국립중앙도서관과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OAK 리포지터리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운영자 교육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은 후 내년 초부터 본격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광기 도서관서관장은 "대전대 도서관서관이 OAK 리포지터리 선정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 이용자들과 자유롭게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대전대 도서관서관의 위상이 높아지고, 동시에 각종 서비스에 대한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생기면서 연구자들의 연구성과 극대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석대 유관순연구소, 제18기 유관순학교 개강



백석대 유관순연구소, 제18기 유관순학교 개강 백석대학교(총장 최갑중) 유관순연구소는 20일 서울 서대문형무소와 안중근기념관, 백범광장 등에서 천안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4~16세의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제18기 유관순학교를 개강했다.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팔레스타인 청소년에게 희망을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센터장 김민)가 지난 19일, 팔레스타인 헤브론 지역에 위치한 코리아-팔레스타인(Korea-Palestine) 청소년 센터(센터장 자이드 알타미미 Saed Al-Tamimi)와 교류협력(MOU)을 체결했다.



대덕구 법2동, 법2권역 민·관 통합사례회의 실시 대덕구 법2동(동장 권승학) 맞춤형 복지팀은 지난 19일 법2동 주민센터에서 2016년 제7차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



대덕대학교, (사)아산시 기업인협의회와 신협협약 체결 19일 오전 11시30분 충남 아산시 그랜드호텔 충코스모스홀에서 (사)아산시 기업인협의회와 취업률 향상과 기업연계를 위하여 양기관이 산·학(MOU) 협약식을 체결했다.



당진소방서, 119시민수상구조대 격려 및 점검 지난 19일 더운 날씨 속에 난지도해수욕장에서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찾아 격려하고, 인명구조장비 및 순찰보선 등을 점검했다.



사천소방서, 불법 대형 위험물용기 일제단속 실시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관내 대형 위험물용기에 대하여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종래 지도 위주의 법집행 관행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않은 대형 위험물용기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법집행 확립과 위험을 운반 중 사고 예방을 위하여 추진되었다.



아산시, 아동안전지킴이 직무·전문교육 실시 지난 19일, 대회의실에서 아동안전지킴이 46명을 대상으로 아동안전지킴이 직무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예산 청소년상담소 김영옥 소장을 초청하여 성폭력(이동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해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시 현장 대응력 강화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사례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지촌연맹서구지회 월평3동분회,경로당 위문 한국자유총연맹서구지회 월평3동분회(분회장 김동섭)는 20일 월평3동 관내 다모아 경로당에서 김덕순 동장이 참석하 가운데 어르신들에게 다과를 대접하고 이원희 여성회장이 진행하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진행했다.

야생진드기 극성... 올해 31명 발생

진료지침 권고안 배포·SFTS 환자 대한 조기 진단과 치료 의료진에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최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이하 SFTS)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진료지침 권고안을 배포하고 SFTS 환자에 대한 조기 진단과 치료를 의료진에게 당부하였다. SFTS 진료지침 권고안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일부 SFTS 환자의 신고, 역학조사 및 의무기록 자료집집·분석(79%)에 근거한 임상소견과

진료방안 등을 수록하였고, 환자 진료 시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의료진에 대한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표준주의지침과 감염관리주의지침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SFTS는 2013년 국내에 첫 발생 사례 확인된 이후 '13년 30명(17명 사망), '14년 55명(16명 사망), '15년 79명(21명 사망)이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16년 7월 18일 현재까지 31명이 발생하여 작년 동기(27명) 대비 148%가 증가하였다.

SFTS는 잠진드기가 활동하는 시기(4~11월에 대부분 발생하고, 주로 야외활동이 많은 중장년 및 면역력이 약해지는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한다. SFTS는 1~2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소화기계 증상(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이 주증상으로 나타내며, 출혈성 소인(혈뇨, 혈변), 신경학적 증상(경련, 의식저하),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조기 인지와 치료가 중요하다. SFTS 환자를 치료하

던 의료진이 환자의 체액에 노출되어 감염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므로, 원인불명의 발열과 출혈을 보이는 환자 진료 시 환자의 체액에 노출되지 않도록 의료진의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당국은 매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 홍보 사업과, 환자 발생 및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SFTS 예방과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 준수를 권고하였다. 김정환기자

금산서, 금산산업고
방학 전 범죄예방교육

금산경찰서는 20일 금산산업고 특수학급 학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여름 방학 전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방학 중 청소년들이 쉽게 저지할 수 있는 비행과 범죄의 유형 및 처벌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또 교육을 자연스럽게 분위기에서 함께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학교폭력 및 성폭력 대처요령에 대한 설명의 시간도 가졌다. 김의옥 서장은 "방학 전 학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범죄·비행 예방교육을 실시해 안전하게 여름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산=손광우기자



논산소방서, 청렴의지 다지기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청렴도 향상방안에 관한 토론회 가져

논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20일 소방서 사회의실에서 팀장급 이상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청렴도 향상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청렴도 향상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 및 지속 검토, 미달 사례 발굴 및 공직자 행동강령 교

육, 반부패 청렴시책 및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으며, 지난해 추진했던 사항을 짚어보고 각 부서별 미진한 부분의 개선을 통해 반부패·청렴의 자율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렴의 생활화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서 권주태 소방서장은

'청렴시책은 결국 민원인과의 신뢰에서 비롯되고 이 신뢰는 친절로부터 시작한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민원인의 요구에 최선을 다해 민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논산소방서는 직장 교육 등을 통해 공무원행동강령 및 청렴교육, 음주운전 예방 특별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논산=김태성기자

대전서부교육지원청 2017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설명회

대전 서부 관내 중학교 학부모들 대상으로 개최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웅)은 19일 오후 3시에서 5시까지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대전 서부 관내 중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201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201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과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전외고·대전동신과학고·자율형 사립고(대성고, 대전대신고, 서대전 자율형 사립고(대성고, 대전대신고) 등 전기 고등학교 전형 안내를 했다. 금년에도 자율형 공립고에 대한 학생 우선 배정이 없고, 일반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고등학교 배정이 이루어지며, 일반고와 자율형 공립고 모두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에 의한 내신 성적으로 전형한다. 특성화고 진학 대상자의 내신 성적 산출일(2016.11.4)과 일반고 진학 대상자 내신 성적 산출일(2016.12.7)이 다르며, 또한 대전외고·대전동신과학고·자율형 사립고(대성고, 대전대신고, 서대전 자율형 사립고)에 적용되는 사회통합 전형의 주요 내용은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은 총 정원의 20% 이상으로 하고, 사회통합 전형 모집 인원의 50%는 기회균등 전형

대상자로 우선 선발하고, 미달 시에는 사회다양성 전형 대상자로 선발한다"이다. 이번 고입전형 설명회는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중 어느 쪽으로 진학하는 것이 앞으로 자녀들의 진로 설정에 의미가 있는지 학부모님들이 갖고 계신 궁금증을 많이 해소한 시간이었다. 또한 자사고가 일반고와는 어떻게 다르며 자사고 만의 차별화된 교육과정은 어떻게 운영 되는지 등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2017학년도 고입 전형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김정환기자

공주소방서, 어린이 눈높이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관내 어린이집 2곳 대상 소·소·심 소방안전체험교육



공주소방서(서장 오영환)는 지난 19일과 20일 청조어린이집(공주시 교동), 태안어린이집(신관동) 어린이 60여명을 대상으로 눈높이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소·소·심 소방안전체험교육을

소방서는 관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직접 보고 느끼는 체험교육을 통해 어려서부터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강화해 '안전 기초가 튼튼한 행복한 어린이 육성'을 목표로 소·소·심 소방안전체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소방서에서 하는 일 소개 ▲올바른 119 신고방법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등 PPT를 활용한 이론교육에 이어 ▲어린이용 방화복 및 헬멧 착용 체험 ▲교육용 소화기 체험 등 어린이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체험 위주로 진행했다. 또 어린이에게 화재와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줘 위기상황 시 대처능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했다. 오영환 서장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즐거운 경험을 통해 소방안전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안전문화 보급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아산소방서 "긴급 상황, 이제 3개번호만 기억하세요"

'2016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시범운영 나서

아산소방서(서장 김득근)가 앞으로는 시민들의 긴급 상황에서의 신고가 더 쉬워지고 긴급출동은 더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산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재난발생 유형 및 분야에 따라 21개 전화번호로 나누어져 있어, 신고체계의 특성상 긴급 상황시 담당 부서 연결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안전처가 이달부터 2016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시범운영에 나섰다. 관련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통합서비스는 오는 10월까지 전국 시범운영을 거친 뒤 같은달 28일부터 본격 시행 예정이다. 긴급신고전화는 119나 112한 곳에만 신고전화해도 신고내용, 위치정보, 전화번호 등 신고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므로 반복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관련기관의 출동 등 공동대응이 빨라지며, 긴급하지 않은 민원상담 서비스는 정부통합민원콜센터 110으로 분리운영해 소방·해경·경찰의 긴급신고 대응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득근 서장은 "긴급신고전화 시스템이 통합되어 앞으로는 119의 임무가 더욱 더 막중해졌다. 아산소방서는 군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영주기자

전기 아껴 돌려받은 1672만원 기부

서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



서구는 20일 탄소포인트 참여자 중기부를 희망하는 1391세대의 인센티브 1672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전달된 기탁금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전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이나 상업시설 등에서 전기 등 에너지 사

용량을 줄였을 때 그 절감액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받거나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서구에서는 현재까지 32,067세대가 가입해 온실가스 감축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3,385세대가 모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28,253,330원을 기부한 바 있다. 박봉관기자

태안소방서, 여름철 수난·익수사고 대비

유관기관 합동 수난구조훈련 실시



태안소방서(서장 김오식)가 19일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여름철 수난·익수사고를 대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수난구조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여름철 증가하는 피서객들로 수난 및 익사사고가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신속한 대

응능력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소방서, 태안군, 태안해경, 경찰 등 총 41명이 참가했다. 기본 안전수칙과 장비별 안전수칙 기본교육 후 동력수상 구조장비, 운 영속달 훈련과 수상 요구조자 발생에 따른 인명구조 요령 훈련을 가졌다. 태안=김정환기자



'유엔군 참전의 날' 계기 인보특별사진전 대전지방보훈청(청장 이명현)은 19일부터 27일까지 대전역 지하철역사를 시작으로 '유엔군 참전의 날' 계기 특별인보사진전을 실시한다.

“성인남녀 81%, 결혼 후 맞벌이 필수”

<사람인> 맞벌이를 그만 둘 수 있는 배우자의 월 수입은 평균 675만원

치솟는 생활물가와 집값 부담 등으로 결혼과 동시에 빚을 지고 시작하는 '하우스푸어', '웨딩푸어' 부부들이 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성인남녀 10명 중 8명은 맞벌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성인남녀 1,487명을 대상으로 '맞벌이 의향'을 조사한 결과, 80.9%가 현재 맞벌이를 하고 있거나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응답률이 86.8%로 '남성'(73.3%)보다 높았다.

맞벌이를 하려는 이유로는 '외벌이로는 생활비가 부족해서'(64.9%,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생활하고 싶어서'(55.9%), '자녀 양육비를 위해서'(37.8%),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37.3%), '대출금 등 빚을 빨리 갚기 위해서'(31.6%), '경력을 버리는 게 아까워서'(27.6%), '각자 자아실현을 할 수 있어서'(27.3%), '결혼 후 목돈이 들어갈 일이 많아서'(21.1%) 등의 응답이 있었다.

맞벌이를 언제까지 하는 것이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인 57.2%가 '일할 능력이 될 때까지'라고 답했다. 뒤이어 '경제적으로 충분히 여유 있을 때까지'(19.5%), '노후자금에 충분히 마련될 때까지'(6.7%), '대출금 등 각종 빚을 청산할 때까지'(4.3%),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까지'(3.5%), '자녀를 낳을 때까지'(2.9%) 등의 답변 순이었다.

경제적인 부분을 이유로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배우자의 수입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맞벌이를 하지 않을 생각이 직장인이 과반 이상인 79.6%를 차지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은 83.7%가 그만둘 의향이 있다고 답변해 '남성'(73.4%)보다 많았다.

이때 맞벌이를 그만 둘 수 있는 배우자의 월 수입은 평균 675만원이었다.

또한, 현재 맞벌이 중인 응답자(651명)들의 경우 맞벌이를 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있다는 답변이 무려 96.9%에 달했다. 스트레스의 원인으로는 '회사와 가사일의 병행'(65%, 복수응답), '자녀 직접 양육 문제'(51.8%), '자녀 교육 문제'(35%), '고생하는 것에 비해 적은 수입과 저축액'(34.5%), '가사 부담 정도에 대한 갈등'(26.9%) 등이 있었다.

한편, 맞벌이를 희망하는 응답자(1,208명)가 생각하는 맞벌이를 할 때 적당한 부부간 가사분담 비율은 평균 53:47(아내:남편)로 집계됐다. 자세히 살펴보면, '50:50'(54.1%), '60:40'(21.2%), '40:60'(8.6%), '70:30'(7.1%), '30:70'(3.2%) 등의 순이었다.

실제 맞벌이 중인 부부들(651명)의 가사 분담 현황은 '아내 위주로 남편이 도와주는 수준'이 57.5%로 1위였다. 뒤이어 '둘 다 반반씩 담당'(23.3%), '아내가 전적으로 담당'(15.1%), '남편 위주로 아내가 도와주는 수준'(3.2%), '남편이 전적으로 담당'(0.9%) 순으로 답변해, 현실에서는 아내가 좀 더 많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복기자

중국 합비시교육국과의 '국제교류' 행사

서산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11개교 중국과 교류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황연중)이 중국 합비시교육국과의 국제교류 행사를 가졌다.

교류의 목적은 양 기관의 교육·문화의 인적·물적 교류 협약을 통해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초·중학생과 교원들의 상호 방문 교류를 통한 양국 상호 이해와 우의 증진,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 교류는 2000년 11월 중국 안휘성 진형중 교육청장이 서산교육지원청을 방문 교육·문화 교류를 희망하면서 시작해, 10여년 간 상호협력 속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서산=김정한기자



금화장학회, 태안 만리포 고에 장학증서 수여 태안만리포고(교장여운용)가 주식회사 금화PSC가 설립한 재단법인 금화장학회로부터 학금 증서를 받았다. 이날 전달식은 금화PSC정도정 사장 외 4명의 임원진이 직접 만리포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장학금을 전달했다.



청양 남양초 예술 특강, 소품을 재해석

2016농산어촌 예술문화체험학교 1학기 활동을 마무리하며

남양초등학교(교장 김영화)는 19일 예술문화체험학교 프로그램의 1학기 활동을 마무리하며 예술 특강을 실시했다. 2016학년도 농산어촌 예술문화체험학교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1학기 동안 3~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극 수업과 2회의 연극 관람을 진행해왔다.

이번 특강은 먼저보기, 만들어보기, 관찰하기, 조각하기 등의 체험활동을 통해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마련했다.

청양=정성범기자

학생들이 연극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을 높일 수 있었다.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예술문화체험학교 프로그램의 1학기 활동을 마무리하며 예술 특강을 준비했다.

'소품을 재해석하다'라는 주제로 우리 주변의 친숙한 생활 소품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끄는 아이디어와 여러 감정을 표현하여 연극의 소품으로 만들어 보는 활동을 진행했다.



천북중, 1000 book Math Festival 개최

충남교육청 지정 창의수학 선도학교인 보령 천북중학교(교장 유병대)가 지난 20일 학교 내 작은 수학축제 '1000 BOOK Math Festival'을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먼저보기, 만들어보기, 관찰하기, 조각하기 등의 체험활동을 통해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마련했다.

특히 천북 지역 행복교육 삼각네트워크인 천북초, 낙동초 학생들도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수학동아리 학생들이 주관하여 하트퍼즐, 뒤틀린 입체도형, 토러스 링, 도미노 등 체험부스와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최근 각광을 받고있는 수학보드 게임 프로그램도 운영해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보령=이정복기자

또한 아산 Wee센터는 지역사회 내 위기 학생에게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해법을 제공하기 위해 솔루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아산 Wee센터의 솔루션위원회는 학교교사또는 관리자, 정신의학, 심리치료, 사회복지, 임상심리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Wee클래스)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위기사태에 대한

충남교육청, 2016 충남 특성화고 취업박람회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성장성 있는 기업에 취업 기회

충남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우수벤처·강소기업 등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성장성 있는 기업에 취업 기회가 주어졌다.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0일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인섭), 천안시, 충남장조경제혁신센터, (사)충남벤처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동으로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2016 충남 특성화고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충남지역 우수벤처·강소기업 54개업체, 37개교 약 600명의 특성화고 학생이 참가했으며, 이 중 328명이 채용될 예정이다. 이밖에 공공기관 채용설명회 및 취업박람회 체험 참가학생 1800명 등 총 2400명이 참여한다.

충남 특성화고 취업박람회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소질·적성·흥미에 맞는 맞춤형 우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선취업 후 진학 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해 지난해에 이어 8번째

로 개최했다. 2014년과 지난해에는 기업 89곳이 참여해 512명을 채용한 바 있다.

행사에 앞서 고용노동부 천안·보령지청, 충남일자리종합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아산시, 천안북부상공회의소 등은 참여기업과 구직자 간에 실질적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매칭을 지원했다. 도교육청 역시 사전검토를 거쳐 참여기업을 선정했으며, 기업의 서류전형을 통과한 학생을 중심으로 당일 박람회장에서 최종 면접을 실시했다.

이날 충남도교육청은 유관기관과의 취업연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충남장조경제혁신센터, (사)벤처협회기관과의 직적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장조경제혁신센터는 전담기업인 한화외의 일자리 매칭을 통해 고졸 취업 확대를, 벤처협회는 우수 강소기업과의 일자리 매칭을 위해 직무교육 연수 등 맞춤형 교육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정복기자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심층평가 종료

아산교육지원청 Wee센터, 지속적으로 학생들에 관심 갖고 지원할 계획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 Wee센터는 오늘 22일 '2016년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2차 심층평가'를 마무리한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학생들의 정서·행동발달의 정도를 평가하고 성장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인지·정서·사회성 발달과정의 어려움을 조기에 평가하여 신속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다.

이를 위해 Wee센터에서는 지난 3월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1, 2차 검사 및 조치사항과 사후관리 내용이 안내되었고 업무시스템 사용법 설명회를 실시했다. 아산시 학부모의 동의를 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Wee센터 전문인력이 학교로 방문하여 심리검사 및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사후에도 학교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아산 Wee센터는 지역사회 내 위기 학생에게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해법을 제공하기 위해 솔루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아산 Wee센터의 솔루션위원회는 학교교사또는 관리자, 정신의학, 심리치료, 사회복지, 임상심리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Wee클래스)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위기사태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을 제공한다. 아산=리향주기자



신배시민대학 사회참여활동 미술만들기 '사랑의 꽃길' 조성 활동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형식)은 지난 19일 대덕구계족산 등산로에서 신배시민대학이 참여한 가운데 '늦은이 NO! 선배시민 YES! 선배시민 파이팅'이라는 선배시민 구호를 외치며 쓰레기를 줍고, 준비한 꽃도장을 정성을 들여 심어 사회참여활동 미술만들기 '사랑의 꽃길' 조성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당진교육지원청 Wee센터, 관내 중학생 70명 대상 실시

학폭예방과 학교적응력 향상 위한 캠프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심재진)Wee센터는 지난 19일부터 1박2일간 관내 중학생 70명을 대상으로 논산 KT&G상마당에서 토래관계 증진과 자기성장을 위한 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캠프는 지난 1학기에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던 학생 정서행동특성 검사 후 지속적인 상담과 멘토링이 필요한 학생들과 학교에서 평소 건강한 학교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올해는 임실에서 이미지를 만들어내

당진=최근수기자

는 사진 작업과 나만의 합합음반 제작, 1분 광고영상 만들기 등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둠놀이와 함께 논의하면서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미션으로 구성했다.

이번 캠프에 참가한 석문중 조모 학생은 "이번 캠프에서 평소 해보고 싶었던 음반녹음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고, 처음 만난 친구들 앞에서 그동안 연습했던 비트박스를 선보이는 순간은 짜릿했다"고 말했다.

2016학년도 학교회계운영 집중 지도 점검

대전교육청, 학교 재정운영의 책무성 강화할 계획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공립 학교 전체(252교)를 대상으로 7월 중순부터 8월까지 학교회계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학교 재정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학교회계 예산편성, 결산심의절차, 예산집행, 학교재정공개, 기타운영사항 등 학교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규정 준수여부 및 재정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전년도 결산자료 및 2015 학교회계 재정운영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순세제잉여금 및 불용액 과다발생 등 점검이 필요한 학교는 현장방문점검을 통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할 예정이며, 학교별 재정운영의 애로사항 등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렴하여 내실있는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회계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재정운영 상 애로점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학교회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모래놀이치료 컨설팅 및 역량강화 컨퍼런스

공주교육지원청, 다양한 사례개입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 가져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연주)은 20일 중회의실에서 관내 Wee클래스 중 모래놀이치료실 운영교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 Wee센터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래놀이치료 컨설팅 및 역량강화 사례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이번 컨설팅은 광현정, 안운경(맑은 마음상담센터장) 전문컨설턴트를 위촉하여 각급 모래놀이치료실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사례 컨퍼런스를 통해 다양한 사례개입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이어서 '인형극장 구조 및 실시방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어 새로운 모래놀이치료 기법을 접하는 기회가 마련되

었다.

현재 관내 모래놀이치료실 구축교는 총 11교, 공주교육지원청 Wee센터 내 1곳이 설치되어 아동·청소년들의 마음건강과 성장을 도모하고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전문적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공주교육지원청 남기욱 Wee센터장은 "Wee클래스와 센터 간 소통과 상담선생님들의 소진방지를 위한 재충전 시간을 갖게 되어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도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요자들에게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 동 정 ●●●

정례브리핑 주재



이춘희 세종시장은 21일 오전 10시 정읍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주재.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21일 오전 11시에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오후 2시 30분에 도교육청 다목적실에서 열리는 『교육행정기관 직권과의 원탁토론회』에 참석.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최고진 세종시교육감은 21일 오후 3시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

감협의회 7월 총회 참석.

예산산파기 전국 중등축구대회



황선봉 예산군수는 21일 오전 10시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2016 예산산파기 전국 중등축구대회

참석, 오전 11시 신양면사무소에서 열리는 신양면 남성의용소방대장이·취임식 참석, 오후 1시30분 예산축산업협동조합에서 열리는 예산군 축산단체연합회 친환경교육 참석, 오후 2시 문예회관에서 열리는 예산농협 협동조합 이념교육 참석.

충남 동반성장협 분과위 개최

충남도는 20일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동반성장협의회 분과위원회를 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확립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동반성장협의회 분과위원회는 동반성장 추진력 확보와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운영 중으로, 도내 주요 산업별 협력 사업 발굴과 발전 방안 모색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분과위원회는 전자,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건설, 유통 등 모두 6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원, 대학 교수,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 51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분과위원회는 신규 위원 위촉식에 이어 도의 동반성장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 설명, 대·중소기업 상생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과제를 토론회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검토를 거쳐 도정에 반영하고, 필요할 경우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홍성 관광특례 PD, 미소국가대표 최초 선정

외래 관광객 친절 맞이 준비 철저

한국방문위원회에서 2016~2018 한국방문의 해 K스마일 캠페인과 관련하여 외래 관광객 맞이 친절문화 확산과 관광홍보사의 사기진작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2016년 미소 국가대표를 위촉하였다.

이에 홍성군 관광특례 PD 최철이 2016년 미소국가대표에 선정되었다.

U-City 사회적 약자 지원 나서

세종시, 시범도시 선정... 국토교통부·SKT와 업무협약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0일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 SK텔레콤과 사회적 약자 보호 연계시스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토교통부가 스마트시티, IoT(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기술을 활용한 국민안전 서비스의 일환으로 행복청, 세종시, 인양시, 오산시, LH,

SK텔레콤 등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시범사업이다.

세종시는 지난 4월 U-City 체형형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에 이어 이번엔 사회적 약자 보호 시스템 시범도시로 선정돼 우리나라 최고의 첨단정보도시로 건설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사회적 약자 보호연계시스템이란 어린이, 치매환자, 노약자가 정해진 지역을 벗어나거나 긴급상황

발생시 이동통신사 위치정보도 자동 전송되는 구조다.

경찰(112), 소방(119센터) 관서에서 끝판타임을 확보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된다.

현재 어린이나 치매환자를 위해 통신사가 운영하는 서비스는 자녀 안심 서비스와 치매노인 배회감지 서비스가 있으며, 세종시에서는 900여명이 자녀 안심기가 서비스

세종 조치원복숭아 홍콩 첫 수출

수출업체 통해 홍콩 이미테이션시장 중심 유통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0일 지역 특산물인 세종 조치원복숭아를 홍콩으로 처음 수출했다.

이번 수출은 세종시와 복숭아생산농가(조치원복숭아공산출하회), 조치원농협이 협력하여 이루어낸 성과다.

수출업체인 엔에스글로벌이 조치원복숭아 샘플을 홍콩 현지로 보내 소비자 등으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출을 진행하게 됐다.

첫 수출물량은 약 540kg로, 세종시는 다음 주부터 8월까지 매주 3톤 정도씩 지속적으로 수출할 계획

이다.

이번에 수출되는 복숭아는 홍콩 이미테이션시장(농산물시장)을 중심으로 유통될 예정이며 추후 현지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홍콩 수출을 계기로 세종시는 딸기, 배 등 다른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 홍콩 현지 구매자를 초청하여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 지역 우수 농산물을 세계시장에 알리려 계획하고 있다.

세종=김정환 기자

임전규 흥림학원 이사장 국민훈장동백장 전수

지역사회 인재육성·교육현장서 학교혁신 추구 인정받아

학교법인 흥림학원 임전규 이사장이 지역사회 인재육성과 교육현장에서의 학교혁신 추구를 인정받아 20일 국민훈장동백장을 수훈 받았다.

군에 따르면 임 이사장은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국민교육발전 유공 훈·포장을 전수받았다.

임 이사장은 1974년도 선전과 함께 대지 2만여평을 매입, 빈곤 타파와 인재육성을 통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흥림학원을 설립했으며 1984년에는 자신의 전재산과 수원 1만5천평과 소 20여

마리를 처분해 위기에 처한 학교를 정상화시켰다.

또한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인재육성 방법을 고안하며 학교발전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왔다.

이윤래 1999년부터는 학생들과 친밀한 교감을 갖기 위해 교사로 부임하면서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 가며 실천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교육의 품성 함양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힘쓰는 한편, 리더십을 발휘해 동료교사들의 창의적 사고 및 헌신적 활동 등에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현재까지 41년 동안 1만1천8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전국 각

지 각계각층에서 주요 사회구성원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동문들의 단합으로 후배들에게 사회참여를 도와주는 유익적이고 단합된 학교로 성장 발전하는데 지대한 공을 인정받았다.

임전규 이사장은 "농촌지역과 지리적 여건으로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평범한 교육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기에 우수 인재들의 외부 유출을 막고 특성화된 교육으로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단체와 자긍심을 고취시켜 재학생과 졸업생들에게도 동질감과 유대관계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예산=이상화 기자

국립박물관단지 종합계획 국제공모 성료

총 24개국 80개팀 작품 제출... 창의적 아이디어·마스터플랜 수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종재,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들어설 국립박물관단지 사업의 종합계획(마스터플랜)에 대한 국제공모 작품접수(6월 17일~7월 13일) 결과, 전 세계 24개국에서 80개팀이 참가하였다고 밝혔다.

국내 24개팀을 포함하여 아시아 39개팀, 이탈리아 등 유럽 21개팀, 미국을 포함한 미주 17개팀 등 세계 전 지역에서 총 24개국 80개팀이 작품을 제출하여 국립박물관단지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이번 국제공모는 행복도시가 대

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고, 인간·문화·자연을 포용하는 문화

승강장(플랫폼)으로써 전 세계인이 언제나 함께 즐기는 열린 공간을 조성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국제공모는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공개경쟁방식으로 1차 공모와 1차 공모당선작 5개 작품이 참여하는 2차 공모로 나눠 진행된다.

1차 공모에서는 국립박물관단지 전체사업부의 조성계획 및 국립박물관단지 1단계 사업부지 종합계획을 제출받았으며, 기술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거쳐 당선작 5개 작품, 가작 6개 작품을 선정한다.

당선자에게는 2차 공모에 참여

할 수 있는 자격 부여와 함께 상금 5,000만원이 수여되며, 가작은 상금 500만원만 지급된다.

행복청은 국제공모의 1차 공모 작품에 대한 심사를 7월 20일과 21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관련분야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7월 18일(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이번에 개최된 기술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작품의 공모규정 및 설치지침 위반 여부 등을 점검 확인하였고, 점검결과는 심사위원회에 심사자료로 제출될 예정이다.

20일과 21일 진행될 공모작품 심사에는 이상관 심사위원장을 건축 대표, 김용미 대표급성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김준성(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후루야 노부야카(와세다대학교 교수), 크리스토퍼 사플즈(SHoP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성홍(서울시립대 교수)가 참여하게 되며, 7월 25일 1차 국제공모 결과를 발표하고, 8월부터 2차공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창섭 행복청 공공추진단장은 "전 세계 건축가들의 뛰어난 참여를 통하여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국립박물관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정복 기자

충남도 제2기 인권위원회 출범

도민인권 보호·증진 사항심의·자문 역할

를 이용하고 있으며, 치매환자는 2000여명으로 파악되었다.

세종시는 이번 시범도시 선정을 계기로 지도기반의 사회적 약자 밀착형 안심서비스, 음악제공 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한편, 빅데이터와 융합한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여 정부가 추진 중인 K-Smart City 해외진출 모범도시로 성장할 계획이다.

김정환 기자



예산읍 임시 고추시장 25일 개장

예산읍은 본격적인 고추 출하 시기를 맞아 주민편의와 매매 활성화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한 달간 임시 고추시장을 개장한다고 20일 밝혔다.

2002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임시고추시장은 해마다 많은 농가와 소비자가 찾아와 품질 좋고 싱싱한 고추를 거래하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거래의 장이 되고 있다.

또한 최근 청양과 당진 등 다른 지역의 고추농가가 적극적으로 참여 예산 고추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올해 고추시장은 공설운동장과 능금농협 주차장에서 열리는 예산장날인 5일과 10일은 공설운동장에서, 예산역전 장날인 3일과 8일은 능금농협 주차장에서 오전 4시부터 8시까지 개장한다.

다만 비가 올 경우 시장은 열리지 않는다.

읍은 전통시장 공공근로자를 투입해 개장일 아침 임시시장을 청소하는 한편 거래량, 가격 등을 파악하고 차량유도를 위한 근무자를 배치하는 등 원활한 시장운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방한일 읍장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고추시장에 많은 농가가 참여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이상화 기자

소방차길 터주기 훈련 실시

홍성소방서(서장 김근제)는 20일 홍성 전통시장 일원에서 소방차량 끝판타임 확보와 범국민적 관심과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홍성 전통시장 및 차량 정제구간인 중앙로·장군산 5거리 구간을 훈련 구간으로 선정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추진과 군민들의 소방차 길 터주기 참여 유도로 소방 활동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등 신속한 재난 초기 대응능력을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소방차 우선통행 및 출동로 확보와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홍보 방송 및 소방용수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 단속 집중 실시로 상생체구간 내 신속한 소방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길재 화재대책과장은 "소방차량의 급박한 사이렌은 꺼져가는 생명의 절실한 울음인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며, 신속한 현장출동으로 군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 박물관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최진우 기자

충남도 내 인권가치의 확산과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할 제2기 인권위원회가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도는 2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제2기 인권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향후 3년간 활동할 위원회의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안희정 도지사 와 인권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와 기념 촬영, 도지사와 위원 간 대화, 인권위원회 1기 활동성과 및 2기 운영계획 설명이 진행됐다.

인권위원회는 ▲중기계획인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인권영향평가 ▲인권센터 설치·운영 사항 등 도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된다.

6차산업 제품 소비자·관광객 동시 공략

충남도 기획판매전 개최

충남도가 6차산업 우수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한 달간 임시 고추시장을 개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충남도가 6차산업 우수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한 달간 임시 고추시장을 개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롯데백화점 본점, 6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 이어서 올해 세 번째로 진행되는 행사로, 도내 12개 6차산업 경영체의 69개 제품이 참여한다.

이번 3차 박람회 '충남도 산·해·진·미'를 주제로 도내 6차산업 제품을 활용한 다양한 여름철미식품이 전시된다. 테마별로 산해진미 가운데 '산(山)'은 건강한 맛의 향토 농산물로 부여 맛밤, 당진 울리고마를 단호박식혜 참여하며, '바(海)'는 서산 갈매, 서해키조개 관자, 간월도 어민굴치이 청정 서해안의 시원한 맛을 선보인다.

'진(珍)'은 건강기능 및 특산

제2기 인권위원회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위원 구성을 당초 14명에서 20명으로 확대했으며, 인권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활동실적이 우수한 1기 인권위원 11명을 재위촉했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인권취약 분야로는 ▲아동 ▲청소년 ▲노동 ▲북한이탈주민 ▲농어업 ▲언론 등으로, 분야별 전문가 6명이 신규위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권센터 설치 관련 기능인력·사무공간 확보 방안 등 인권현안에 대한 제2기 인권위원회의 실질적인 자문이 이뤄졌다.

안희정 지사는 우수위원장을 비롯한 제1기 인권위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새롭게 출범하는 제2기 위원회가 다양한 인권교육 콘텐츠 발굴 및 시민사회 인권역량 제고 사업 추진에 앞장 서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환 기자

특히 도내 6차산업 경영체는 이번 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개최되는 점을 고려해 선출용 소포장 중심의 상품 구성에 더욱 신경을 썼다.

이번 기획판매전에서 3만 원 이백을 구매 한 고객에게는 에코백이, 모시송편 2만 원 이상 구매고객에게는 찜기가 증정되며 경영체별 가격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충남 6차산업 우수제품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추가적인 판촉행사를 열 계획"이라며 "6차산업 경영체들이 다양한 유통채널을 연계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롯데백화점 기획판매전에서는 총 8900만 원의 매출 성과를 거뒀다.

김정환 기자



예산군농기센터 친환경농업 전문기술교육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9일 기술센터 교육관에서 2016년도 품목별 단기교육의 일환으로 친환경농업 전문기술 교육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재배농가 및 친환경 농업에 관심이 있는 농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의 고부가가치 산업의 가를 다지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세계적 인기 농인인증기관 (IBBC)코리아 구은주 팀장으로부터 ▲친환경 양분분해의식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산=이상화 기자

작성 요령 등에 관한 전문 교육을 받았다.

이러 친환경농업을 적극 실천하고 있는 박기환 회원을 비롯한 1명의 농업인이 강사로 나서 친환경 농업의 필요성과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한 사례 중심의 교육을 진행해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던 현장에서의 문제점 해결에 도움을 주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기술센터는 새로운 정보제공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이 생산품목 다양화와 농업인 경쟁력 향상, 고부가가치 친환경농업의 가를 마련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정

후원 협약식



북기왕 아산시장은 21일 오후 3시 30분 시장실에서 열리는 기업인협의회 취약계층 후원 협약식에 참석

추진상황 보고회



이석화 청양군수는 21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에 참석

업무협약식



심재진 당진교육장은 21일 오후 3시 당진교육지원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당진급식지원센터와의 업무협약식에 참석

탕정면 주민 실현하는 복지허브화

아산시 탕정면 행복마을추진단단장 송현순은 20일 화재로 인해 거주처가 마비된 주민들을 위한 복지허브화 방안을 논의하고 마을(village welfare) 사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7월 11일, 거주하던 콘테이너 건물이 모두 전소되는 큰 화재로 인해 거주할 곳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노인부부 이○○ 씨에게 도움을 주고자 열린 이번 회의는 행복마을추진단에 모금된 후원금을 긴급생계비로 지원, 새마을회에서 생필품·가전제품을 지원, 복지관의 후원요청을 통해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방안 마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장원 탕정면장은 "민·관이 함께하는 마을복지가 실현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마을(village welfare) 사례회의는 주민이 주관해 마을 안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주민 스스로 찾는 마을복지 실현의 첫 사례이기 그 의미가 남다르며 주민 스스로 마을인정명을 구축하는 '마을복지 허브화'의 선도적인 사례를 탕정면이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산개인균등분 주민세 안내문발송

아산시는 2016년 8월부터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동 지역 4천 4백원, 읍·면 지역 3천3백원에서 동일하게 1만 1천원으로 인상하면서 이에 따른 납부 안내문을 12만 전 세대주에게 7월 18일 일제 발송했다고 밝혔다.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재산 및 소득에 관계없이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이며, 생세,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숙사에 거주하는 임시 거주자인 경우는 부과에서 제외된다.

시는 시민의 주민세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6년 동안 인상을 자제해왔으나 그동안 정부의 인상 권고와 함께 인상하지 아니한 지자체에 대하여 매년 지방교부세 차등지원 등으로 우리시는 매년 17억여원의 지방교부세 손해를 보는 패널티를 받고 있어 오히려 시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불가피하게 주민세를 인상하는 '시세조례'를 개정했으며, 충청남도 시·군을 비롯한 전국 139개소 지자체들도 이에 따라 대부분 인상을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 인상이 당장은 서민 증세 부담이 되고 있지만 증가되는 세수는 시민들의 복지증진 등 주민 참여예산으로 활용하면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8월말 까지 납기 내 납부하여 주시고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당진 시민의 생존권 사수 함께 할 것

김홍장 시장, 신규 석탄화력발전 건설 중단 촉구 기자회견

김홍장 당진시장이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송전선로·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발의하고 있는 신규 석탄화력발전 건설 반대 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석탄화력 개선대책은 전 세계적 인 탈 석탄화력발전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꼬집고 신규 석탄화력발전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석탄화력 개선대책 중 김 시장이 비판한 부분은 4~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된 석탄화력발전소를 당초 계획대로 건설하겠다고 한 부분이다. 이렇게 되면 당진지역에는 58만kW급 2기가 신설돼 당진지역에서만 총12기, 716만kW 규모의 화력발전이 가능하다.

김 시장은 "대다수의 당진시민들은 석탄화력 발전소 집중화로 이어지는 미세먼지 발생과 송전탑 건설, 변전소 등 2차적 피해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시민 스스로 범대위를 구성하고 반대대회에도 돌입했다"며 "일련의 과정을 지켜 보면서 시민을 보호해야 할 시장으로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 단 식투쟁활동에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인 당진에 코퍼워의 철회 ▲당진화력→신송산간, 북당진→신당정 간 (예비) 송전선로 지중화 ▲북당진 변전소 소송 취하 ▲기존 송전선로의 전면 지중화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 말미 김 시장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롭다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동시에 당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 역시 갖고 있다"며 "시장이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시민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석탄화력발전의 폐해로부터 정부가 국민들을 적극 보호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김홍장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서울 광화문으로 상경해 범대위에서 개최하는 시민 피해사례 전시회에 참석하고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시민들과 함께 단식활동에도 나선다.

시는 김 시장의 단식활동 기간 동안 서울 광화문 현지에 이동시장을 설치하고 실시간 전자결재 시스템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당진=최근수 기자

우리/동/네



안전한 해수욕장 만들기 온힘

태안군, 6개 해수욕장서 익수사고 현장대응훈련 실시

태안군이 피서철을 맞아 관광객들의 물놀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현장대응훈련을 실시했다.

군은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만리포와 연포 등 주요 해수욕장 6곳에서 '2016 물놀이 익수사고 긴급구조훈련'을 실시, 군의 재난대응역량 강화와 각 기관별 임무 수행 역할 정립에 온힘을 다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질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18일 오후 2시 학암포해수욕장을 시작으로 3시 만리포해수욕장, 4시 연포해수욕장, 19일 오후 2시 몽산포해수욕장, 3시 삼봉해수욕장, 4시 꽃지해수욕장에서 실시했다.

군은 물놀이 하던 피서객 1명이 수영 미숙으로 익수사고를 당했다는 가상 상황을 설정, 실제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훈련에 초점을 뒀으며 △사전 준비 △긴급신고 △출동구조 △응급조치 △환자 이송 등 매뉴얼에 따른 훈련에 이어 훈련 상황 전반을 최종 점검하는 강령을 실시했다.

특히, 태안군을 비롯해 태안해양경비안전서와 서산경찰서, 태안소방서, 안전관리요원 등 연인원 250여 명이 참여해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상오토바이 6대와 순찰차 2대, 구급차 1대 등 각 기관별 장비를 동원해 실제 사고 시 대처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군은 해수욕장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120명의 전문 안전요원을 23개 해수욕장에 배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해수욕장 폐장일까지 물놀이 안전관리 TF팀을 운영하고 공직자들이 직접 해수욕장에 나가 현장을 점검하는 등 강도 높은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훈련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반복적인 훈련을 실시해 태안군을 찾는 피서객들이 안심하고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환기자

태안군 폭염쉼터 인기 폭발

청소년수련관 인근 무료 폭염쉼터 조성, 8월 28일까지 운영

태안군이 어린이와 가족들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한 '폭염쉼터'를 조성, 15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군은 태안을 청소년수련관 인근에 총 사업비 2억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을 들여 폭염쉼터를 조성, 오는 8월 28일까지 45일간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폭염쉼터 환경부 주관 '기후변화 안심마을' 공모에 태안군이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군은 기후변화에 적응이 힘든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월에 공사를 시작해 최근에 준공해 15일부터

폭염쉼터 운영에 들어갔다. 폭염쉼터에는 조합물놀이대와 그늘막, 쿨링포그 시스템, 간이샤워시설, 정자 등 다양한 시설이 설치돼 있어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시원한 여름을 선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안전관리자격을 보유한 안전요원 2명을 배치하는 한편, 이용 안내판을 게시하고 수조 깊이를 30cm로 유지하는 등 안전한 쉼터 이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쉼터 청소 및 주변 환경 정리, 물 교체 등 관리에 철저를 기



해 어린이와 가족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쉼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폭염 쉼터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무료로 운영되는 만큼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찾아오셔서 즐거운 여름을 보

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폭염쉼터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시간당 20분씩 휴식시간이 주어지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환경산림과 환경관리팀(041-670-2792)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안=김정환기자

여름철 물놀이 안전은 자율방재단이 책임진다

청양군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운영 회의 개최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지난 19 일 10개 읍·면 자율방재단 회의를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군은 여름철 물놀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대치면 물레방앗간 유원지 주변을 중심으로 물놀이객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통제선 관리, 익수구조구조·구급활동, 유원지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해 안전문화 위상에 기여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의 자긍심 고취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청양군 지역자율방재단(단장 배영)은 "재난대처를 위한 주민참여 방안으로 일정부분 역할분담을 부여받고 운영의 자율

성 보장 및 방재단의 사회적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다방면으로 자긍심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온 만큼 인원을 더 확충해 활동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지자체의 행정력만으로 다양한 재난에 대처하기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이 참여하는 지역단위의 자율방재를 통한 재난대응 능력향상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양군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해 재난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한 단계 높이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청양=정성범기자

당진시·옥환현 학생들이 한-중 우정 교류

지자체 자매결연 협약계기 올해부터 학교간 교류시작

중국 옥환현에 소재한 성관중심소학교 학생 12명이 지난 20일 자매결연도시 충남 당진시를 방문해 4박 5일간의 홈스테이를 시작했다.

성관중심소학교 학생들의 이번 당진 방문은 지난해 4월 당진시와 옥환현이 우호친선도시 협약을 체결

을 맺을 당시 당진 탐동초와 옥환현 성관중심소학교 간 자매결연도 함께 맺으면서 성사됐다.

지난 2012년 당진시와 옥환현의 상호교류 의향협약 이후 양 도시 학생들의 교류는 이어져왔지만 올해처럼 학교단위로 교류가 이뤄진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다.

20일 당진시청을 견학했던 학생들은 21일부터 자매결연 학교인 탐동초등학교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한국문화 체험활동에 나선다.

체류기간 동안 학생들은 한국 학생가정 홈스테이와 당진지역 기업체 방문, 기지시출다리기박물관 견학, 학교체험활동, 여촌체험 및 도자기 체험 등을 통해 한국의 가

정생활과 전통문화를 배울 계획이다.

성과중심소학교 학생들이 다녀간 뒤에는 탐동초등학교 학생 12명이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옥환현을 방문해 홈스테이를 하며 중국문화와 현지생활을 체험할 예정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학생들의 이번 교류가 한·중 양국의 미래 번영과 협력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제23회 청양군민대상 후보자 6개 부문 내달 19일까지 접수

청양군군수 이석화는 지역발전에 기여한공로가 큰군민 및 출향인을 발굴·선정해 군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귀감으로 삼고자 제23회 청양군 군민대상 후보자를 8월 19일까지 추천받는다.

추천대상은 우수한연구 및 창작, 현수상 부문은 ▲교육·문화·예술·체육 ▲사회봉사 ▲산업·지역개발 ▲농림 ▲유통·선행 ▲애향 등 6개로 후보자 추천이 없거나 심의 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포상하지 않는다.

추천대상은 우수한연구 및 창작, 현수상 부문은 ▲교육·문화·예술·체육 ▲사회봉사 ▲산업·지역개발 ▲농림 ▲유통·선행 ▲애향 등 6개로 후보자 추천이 없거나 심의 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포상하지 않는다.

지역인 공헌을 한 자 등으로 군 단위 기관·단체장, 읍·면장 추천 또는 주민 30인 이상연명을 통해 추천 받는다.

군은 오는 9월경 군민대상 위원회를 통해 시상부분별 심사기준으로 수상자를 선정해 10월초 개최될 예정인 제25회 군민의날행사에서 시상할 계

획이다.

관계자는 "지역과 군정 발전을 위해 현안분들을 적극 발굴해 공로가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군 행정지원과 서무팀(940-2761)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양=정성범 기자

스마일 인주만들기 직원 친절교육

아산시 인주면면장 오세규는 면사무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스마일 인주만들기 일환으로 친절한 인주만들기을 위해 직원대상 친절교육을 매일 실시하고 있다.

7월 친절교육은 지난 18일 '선배 공무원에게 듣는 다리는 주제'로 실시하며 신규 공무원들이 평소 느끼는 민원응대 시 어려운 점에 대해 선배 공무원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직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중요함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

오세규 면장은 "진절은 마음이 편하고 즐거우면 자연스럽게 실천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직원이 먼저 행복한 인주면사무소를 만들어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친절을 실천해 모두가 스마일하는 인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우리/동네

여름철 에너지 절약 적극 추진

계룡시, 시민단체 기업과 함께 절전캠페인 전개

계룡시(시장 최홍욱)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폭염 등 이상 기온으로 인한 냉방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 단체, 기업과 함께 하절기 절전 캠페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는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내 냉방온도 기준과 전력수급 위기 시 조치사항 등에 대한 여름철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적정 실내온도 준수(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온도 28℃이상 유지), 조명 및 전기 기기사용 합리화(장축 조명 소등 및 복도 조명 50%이상 소등 권장, 14시~17시에는 불요불급한 전기 사용 자제), 전력수급 위기 단계별 조치사항 이행 등이다.

특히, 냉방온도 제한예외기관이라 하더라도 긴팔 옷을 입고 냉방하거나 문을 열어 놓고 냉방하는 등의 에너지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 도서관, 어린이집, 대중교통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은 자체적으로 적정 실내온도를 설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 여름도 국가적인 전력부족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에너지 절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덕교 재가설 추진 '총력'

논산시, 중앙교각 침하현상 따른 피해복구·시설개선 힘써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최근 집중호우로 타설저수지 주 출입로인 성덕교(은진면 성덕리)의 중앙교각이 침하현상에 따른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피해복구 및 시설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내린 480mm이상의 집중호우로 양암천과 논산천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성덕교 시도12호가 세굴되고 침하돼 교량상판 처짐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지난 6일 사고방지를 위해 붕괴위험이 있는 성덕교에 모든 차량 출입을 전면 통제했고, 12일 국민안전처 예방총괄과를 방문해 성덕교 재가설 사업 30억원, 배



수평프 교체 15억원 등 2개 사업에 대해 붕괴 위험의 심각성과 사업지원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시는 성덕초 사거리 일대 등에 우회도로 표지판을 설치하고 긴급

교량 정밀안전진단에 나섰으며, 정밀안전진단 용역 입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시간내 기존 교량을 보수하거나 전면 재설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군부대(1115공병단)와 긴밀히 협조해 이번달 말까지 임시 가교를 설치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수차례 현장을 방문한 황명선 논산시장은 "안전이 최우선인 우리 사회의 행복을 위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필수 요건"이라며, "재가설공사가 조속히 추진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논산=김태선기자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 과일동 복합도매동으로 이전

'8월 첫째 주 토요일 휴무' 실시로 시민불편 해소 홍보 만전

지난 1995년 7월 개장한 이후 중부권 최대 도매시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시설현대화 및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새롭게 탄생하고 있다.

천안시는 시설물 노후화로 2012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시설현대화 및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수산경매동을 개장한데 이어 오는 7월 25일 복합경매동에 중도매인 점포 입주를 앞두고 있다.

시는 시설현대화 및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매 시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86%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은 총사업

비 344억원을 투자하여 부지 5만 6,677㎡에 시설면적 3만4,566㎡ 규모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신선한 농수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과일 중도매인 32개 점포가 오는 7월 25일부터 (구)과일동에서 신축 복합도매동으로 이전하여 영업을 시작하게 된다.

아울러 지난 5월 11일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

례' 일부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 휴업일을 하계휴무(8월 첫째주 토요일/8월 6일)로 지정해 휴무에 들어간다.

이밖에 휴업일은 일요일, 1월 1일, 1월 2일, 추석(3일), 설날(3일)도 포함된다.

김종구 농업정책과장은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및 리모델링 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김정환기자



규암면 적십자 사랑의 집수리 봉사

부여군, 장판과 벽지 교체 봉사활동 펼쳐

부여군 규암면 적십자회장 나인화는 지난 19일 함양리 한화순(여, 만66세)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에는 규암면 적십자회원 25명이 참여하여 오래된 장판과 벽지를 걷어내고, 회원들이 정성껏 고른 장판을 깔고, 벽지를 붙이며 구슬땀을 흘렸다.

깔끔하게 단장된 집을 보신 한화순 어르신은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해 준 적십자 회원들에게 먼저 감사하고, 깨끗하게 바뀐 집을 보니 눈물이 난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나인화 규암면 적십자회장은 "어르신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꾸준한 봉사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규암면 적십자는 매년 부여군 주요행사 봉사, 내 고향 문화재 지키기 활동, 사랑의 국수·김장 나누기 행사 등을 통해 더불어 사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부여=이정복기자

부여군 다문화자녀 언어 경쟁력 키운다

충남 최초 자녀성장프로그램... 학습장애 등 부작용 퇴출



부여군(군수 이용우)이 다문화자녀들이 겪고 있는 학습장애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2개 국어 이상을 동시에 구사하는 경쟁력을 키워

주목받고 있다. 부여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의 강점을 살려 이중언어를 통한 사고력 향상과 창의력

발달 등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0-4세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6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7-10-3 자녀성장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충남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임신 7개월부터 남편은 한국어, 아내는 모국어로 태교를 하도록 유도하고, 생후 10개월까지 모국어를 계속 들려줌으로써 3세 이전에 이중언어 교육을 강화하고 정착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의 경우 언어발달 지체와 이중문화의 장벽으로 인한 불안한 정서와 더불어 소극적인 성향 또는 행동과잉장애를 보이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특히, 전문 강사가 부모 및 시부모에게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하여

필요성과 이해를 도우면서, 전화 및 방문 모니터링으로 꾸준한 실천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 19일에 실시한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은 운동놀이, 음악놀이 등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부모와 자녀간 바람직한 관계 형성, 부모의 자녀양육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미영아빠(39), 여씨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인해 자녀에게 모국어로 얘기하면 재미있게 놀이하는 방법을 배워 정말 좋았고, 집에서 아이와 함께 놀이에 활용할 수 있어서 아이의 장벽으로 인한 불안한 정서와 더불어 소극적인 성향 또는 행동과잉장애를 보이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부여=이정복기자

서천군보건소 백세건강 아카데미 성황리 운영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고품격 건강강좌



서천군보건소(소장 김재연)는 만성질환 등록자 및 지역주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백세건강 아카데미 건강 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로 8번째 운영 중인 백세건강 아카데미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둘째, 넷째 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16회 운영될 계획이며, 19일에는 노인 근력 향상 운동 및 노인체조를 시작으로 원광대학교 병원 오경태 교수를 초빙해 '진드기 매개 질환'을 주제로 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관리를 위해 운동, 영양, 절주, 금연 및 우

울증과 치매, 구강관리, 만성질환 예방 등 다양한 영역별 전문 강사의 강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은 물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고 있는 백세건강 아카데미는 올해 관내 병원 원장이 강사로 참여해 주민 교육에 적극 동참하는 등 민관 협력 시스템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이춘복 건강증진팀장은 "초고령 사회인 우리군 실정에 맞게 어르신의 건강문제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백세건강과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천=김태선 기자



계룡시농기센터 "귀농 교육" 성료

귀농 희망자 25명 대상... 4회 걸쳐 제2의 인생 설계

계룡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는 지난 6월 2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4회에 걸쳐 귀농 희망자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귀농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귀농정책, 귀농의 이해 등 분야별 전문 강사의 강의와 귀농 선배들로부터 경험에서 얻은 정착사례 발표를 통해 참석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를 갖고자 마련됐다.

특히, 귀농 선배의 농장 방문 등 현장교육을 통해 귀농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극복 과정에 대해 실질적으로 배우면서 귀농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석한 한 시민은 "그동안 경험과 정보 부족 등으로 귀농을 망설이던 있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구체적인 설계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석조 소장은 "앞으로 귀농 선배와 농업인들의 현장 중심 교육을 실시하는 등 귀농 희망자의 시향적응을 최소화하여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논산시 지속가능한 농업 '강소농'이 선도한다

개별농가 경영계획수립·실천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

논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우)는 논산농업의 희망 강소농 육성을 위해 3월부터 7월 18일까지 맞춤형 전문교육 중심으로 운영한 2016 강소농 경영개선 후속 교육에 30명이 수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강소농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수료한 핵심 강소농을 대상으로 경영계획 수립, 실행보고서 작성, 농장 컨설팅 등 성과창출을 위한 동기부여 및 실천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에 목적을 두

고 이뤄졌다. 교육생들은 이번 후속 교육을 통해 개별 경영체의 실천가능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자체소모임을 통해 실천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며 실천의지를 높였다.

한편, 강소농(強小農)은 2011년

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농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로 FTA 등 외부 농업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54농의 강소농을 선정 육성 중에 있으며, 올해 신청한 80여 강소농 경영체를 육성하고 있다.

통정
소년체전 선수단해단식



황명선 논산시장= 21일오후 4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제1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제45회 전국소년체전 선수단해단식에 참석.

군민안전현장관찰단 발대식



이용우 부여군수= 21일 오후9시30분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3층에서 열리는 군민안전현장관찰단 발대식에 참석.



'깨끗한서천 만들기' 함께해요

하절기 피서지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깨끗하고 청결한 피서지 조성과 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하절기 피서지 쓰레기 관리대책기간'을 설정해 운영중이다.

서천군은 하절기 피서지 주변 쓰레기 발생량 급증으로 쓰레기 수거와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7월 2일부터 8월 15일까지 45일간을 하절기 피서지 쓰레기 관리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쓰레기 신속처리와 발생억제 홍보, 불법투기단속 등을 통해 청결한 피서지 환경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피서지 쓰레기 관리대책기간 동안 피서지 주변 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및 운반을 위해 1일 2회 이상 쓰레기를 수거하고, 2인 1조 기동처리반을 운영해 기동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또한 주요 피서지인 준장대해수욕장, 월하성 갯벌체험 마을, 장항송림산림욕장 등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피서지와 관광지 주변 상습 불법투기 발생지역에서 쓰레기 발생억제 홍보 및 단속활동을 병행해 깨끗한 피서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구충환 환경보호과장은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위해 피서지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되가져 가고 가급적 회용품 사용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며 종량제 봉투 미사용과 쓰레기 불법투기 등 위반행위 적발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천=김태선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회 가격으로 최대의 맘이 게재돼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www.daejeontoday.com

통정

계통회 월례회의



오시덕 공주시장은 21일 오전 11시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7월 중 계통회 월례회의에 참석하고, 오후 2시 상황실에서 열리는 세종시 출범에 따른 주민의식조사 결과보고에 참석하며, 오후 6시 백제체육관에서 열리는 공주시청 부서대항 직원 화합 명랑운동회에 참석.

비기립시설 준공식



김동일 보령시장은 21일 오전 11시 30분 한내시장에서 열리는 비기립시설 준공식, 오후 1시 30분 서산시청에서 열리는 고운최치원 인문관광도시연합회의 정기회의, 오후 7시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 특별부대에서 열리는 머드기오제 참석.

안전스티커 부착행사



이완섭 서산시장은 21일 오전 10시 서산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되는 노인안전자전거교육 및 안전스티커 부착행사에 참석, 오후 12시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고운최치원 인문관광도시연합회의에 참석, 오후 3시 서산시청 상황실에서 아동급식위원 위촉.

이토피 제품 공동개발 보고회



박동철 금산군수는 21일 오전 10시 상황실에서 열리는 아토피 제품 공동개발 보고회에 참석.

원탁토론회 참관



이연주 공주교육장은 21일 오후 2시 30분 충남교육청에서 열리는 교육감과 함께 하는 행정직원의 원탁토론회 참관.

대전/투데이 daejeontoday.com

도시안전통합센터 건립 '순조'

서산시, 각종 범죄·사건·사고로부터 시민들 생활안전 강화

서산시가 각종 범죄 및 사건, 사고로부터 시민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도시안전통합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된 총 1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건축물의 노후로 실시했던 외벽보강 등의 리모델링 작업이 마무리 단계 이고, 경찰서 상황실 등에서 분산 운영 중인 CCTV 696대의 관계 통합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축하고 개인영상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도시안전통합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주시 관내 골프장 농약으로부터 안전

상반기 불시검사, 고독성·잔디사용금지농약 불검출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관내 9홀 이상 2개 골프장에 대해 농약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과 잔디사용금지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총 28종의 농약을 대상으로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2개 골프장 모두 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약이 검출될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게 된다. 진기연 환경지원과장은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골프장 환경조성을 위해 올 하반기에도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골프장 이용자의 안전과 주변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천해수욕장 '열린 관광지' 본격 운영

장애인·노인 대상 워터체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국민 관광지 대천해수욕장이 '누구나 쉽게 이용'이라는 주제로 올 한해 장애인, 노인 등 노약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열린 관광지'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나섰다.

고 있는 '세계인의 축제, 보령머드축제'와 연계해 물놀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열린 관광지'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워터체어'와 '열린카페트'는 관광 취약계층의 문화·체험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례일 뿐이다."며, "앞으로 전국 모든 국민들이 대천해수욕장에서 맘껏 체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편의 증진에 더욱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해 공모로 추진하고 있는 열린 관광지 사업은 전 국민의 균등한 관광 활동 여건을 조성해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고 고품사회를 대비해 관광 환경을 선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미래 관광산업의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령시의 열린관광지 운영 사업 중 특이점은, 국내 최초로 대천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휠체어나 유모차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열린카페트'를 깔아서 백사장 위를 걷는 태운 휠체어가 바다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게 한 것이며, 포령자 및 장애인 등 몸이 불편한 관광객의 해수욕 지원을 위해 물에 뜨도록 고안된 워터체어(Water-Chair) 3대를 해외에서 수입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부터 시작된 열린관광지 공모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 또는 관광사업자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투자해 다목적 화장실 개선, 장애인 눈높이에 맞춘 매표소 창구 및 관광지 접근 경사로 낮추기,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지 안내판 설치, 공연장 장애인 관람석 설치 등 관광취약 계층을 위한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령시는 올해 국비 1억 6000만원을 포함한 3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장애인 보행로 및 화장실을 개선했고, 열린바다 체험존 운영 등 11개의 열린 관광지 조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까지 보령의 대천해수욕장을 비롯해 정동진 모래시계공원, 고창 선운산 도립공원, 여수 오동도 고성 당항포, 경주 보문관광단지, 순천만 습지, 곡성 삼진강기차마을, 한려수도조망케이블카, 대구 중구 근대골목, 한국 민속촌 등 11곳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열린 관광지로 선정됐다.

우려를 가중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천해수욕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열린 관광지' 사업은 해수욕장으로써는 최초로 지난 4월에 선정됐으며, 15일부터 열리

우리/동네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금산군드림스타트 영양교육·만들기체험 프로그램

금산군드림스타트는 지난 19일 학령기(1~6학년)대상 아동 8명과 함께 영양교육 및 만들기(피자&모기퇴치팔찌)체험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북 무주군 적성면에 위치하고 있는 피자 만들기 체험교실에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 아동들의 올바른 식습관 정착과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령별 학습수준을 고려해 초중저학년과 초등고학년으로 구분했으며, 5대 영양소의 이름 및 역할, 영양소로 구성된 식품구분 탐 완성하기 등 다양한 학습도구 활용의 시간을 가졌다.

박동철 금산군수는 "성장기 이들에 있어서 올바른 식습관의 형성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할 수 있는 드림스타트 아동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산군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중 복합적인 욕구 및 문제를 가진 0세~12세까지의 아동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보육(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이동복지사업이다.



서산시 보호자 없는 병원 호응

저소득층 가구 사회·경제적 부담 해소

서산시보건소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려고 운영중인 보호자 없는 병원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서산의료원, 중앙병원, 도립요양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개 병실 72병상을 보호자 없는 병실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중남도민 증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병동 입원환자를 비롯해 ▲요양병원 입원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경감대상자 ▲긴급복지대상자 ▲건강보험 하위 20%이하 납부자 등이다.

한편 지원을 받기 원하는 환자는 지정병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1인당 연간 최대 45일까지 ▲환자의 편의 증진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노인전문병원으로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차매·중풍으로 고생하는 취약계층의 수혜 기회가 대폭 늘어났다고 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올해 6월 기준으로 145명이 1,965일의 무료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문의는 서산의료원, 도립노인전문병원, 서산 중앙병원과 서산시보건소 보건과 ☎661-6514에 하면 된다. 서산=김정현기자

현대식 전통 가옥

MODERN TRADITIONAL HOUSES

BEST PLAN 옛 한국 전통 가옥의 장점과 현대적인 아름다움 더하다.

1 친환경적이다 (Eco-Friendly)

콘크리트가 아닌, 친환경적인 황토 벽돌과 나무골조를 사용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느낌과, 정서적인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황토가 가지고 있는 수억 마리의 미생물이 인체에서 나오는 독을 제거하고 우리 몸의 생리작용을 활성화 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아토피 등의 피부질환과 건강 관리에도 탁월한 효능을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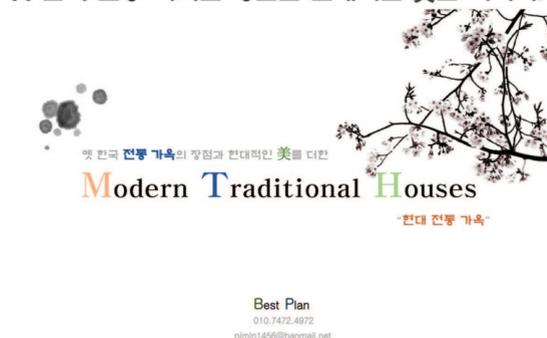


3 전통적인 아름다움 (Traditional)

한옥은 기둥 위에 '도리'라는 부재를 올리고, 그 위에 '서까래'라는 부재를 올려서 지붕의 구조체를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생긴 처마의 형태가 구조적 아름다움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기와의 전통성과, 구조체로 쓰인 나무와 황토의 색깔, 그리고 흙 내음이 우리나라 전통 향수와 아름다움을 풍깁니다.

2 난방비 절약 (Economizing)

흔히 말하는 황토 집 온돌방(황토방)이 바로 이 전통 가옥입니다. 추운 겨울날, 아궁이에 불을 때면 집을 따뜻하게 하는 기술과, 구조적 특징으로 갖춘 습도와 온도조절 기능 그리고 공기 청정기능으로, 더운 날은 시원하게, 추운 날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면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서양의 벽난로 같이 과열되어 인화되는 위험성도 없고, 보일러나 벽난로같이 동파와 고장도 별로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 사랑이 오네요 (SBS오전8시30분)



도롯가에 서있는 선영을 발견한 우주. 우주는 선영이 택시가 잡히지 않아 초조해하자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한다. 우주는 선영의 머리에 헬멧을 씌워주고 뒷자리에 태워 출발한다. 한편, 상호와의 지난 악연들을 떠올리던 해인은 한솔에게 아바를 찾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 좋은 사람 (MBC오전7시50분)

미션(박정수)은 혈액검사를 했다는 예준(이민호)의 말을 듣고 영훈(서우진)의 혈액형과 비교해 보고, 수혁(장재호)은 정원(우희진)

에게 아이까지 받아들이겠다고 자신의 마음을 전한다. 한편, 경주(강성미)는 변비서(서광에게 은애(김현주) 사진을 보여주며 찾아보라고 하는데...

▲ 내마음의 꽃비 (KBS2 오전 9시00분)



연희(임채원)가 분사 담보 서류를 건네자 당황한 일란(이지은)과 수창(정희태)은 경쟁사에 제2공장을 매각해서라도 잡힌 담보를 찾으려 한다. 한편 민규(김명수)는 계곡(이주실)을 찾아 주주총회를 소집해 일란과 수창이 사태의 책임을 지게 할 것을 요구하고, 궁지에 몰린 일란은 자신 때문에 비참해지는 해주(정아연)를 보며 연희를 찾아가기로 결심하는데...

케이블 영화

▲ 인서전트 (OCN 오후 2시30분)

'지식' 에라다이트, '용기' 돈트리스, '평화' 애머티, '정직' 캔더, '이타심' 애브니게이션. 다섯 개의 분과로 사람들을 구분해 통제하는 미래사회. 그러나 이 다섯 분과에 모두 속하는 동시에 또한 속하지 않는 '다이버전트'가 있었다. 이들 다이버전트들이 정부로부터 사회체제를 와해시킬 위험한 부류로 지목되면서 특별한 운영을 지닌 '트리스'(세일린 우들리) 역시 도망자의 신세가 된다.

최고 권력자 '제닌'(케이트 윈슬렛)의 음모였지만 자신 때문에 엄마와 아빠, 친구를 잃었다는 슬픔에서 분노로 가득찬 트리스. 함께 도망친 연인 '포'(테오 제임스)와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들고 분과체제를 거부한 무분과들을 만나 반란군 '인서전트'를 조직해 전쟁을 시작한다.

한편, 제닌은 그들 세계의 비밀을 품고 있는 상자를 찾는다. 창시자들의 메시지가 담긴 상자. 특별한 다이버전트가 다섯 분과를 상징하는 다섯 가지 시퀀스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열리고, 트리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위험한 선택을 하는데...

마침내 밝혀지는 거대한 비밀! 자유를 위한 반란, 시스템을 파괴하라!

▲ 신세계 (채널CGV 오후 10시00분)

세 남자가 가고 싶었던 서로 다른 신세계. "너, 나하고 일 하나 같이 하자"

경찰청 수사 기획과 강과장(최민식)은 국내 최대 범죄 조직인 '칼드문'이 기업형 조직으로 그 세력이 점점 확장되자 신임경찰 이자성(이정재)에게 잠입 수사를 명한다. 그리고 8년, 자성은 칼드문의 2인자이자 그룹 실체인 정청(황정민)의 오른팔이 되기에 이른다.

"우리 브라더는 그냥 딱, 이 형님만 있으면 돼야" 칼드문 회장이 갑자기 사망하자, 강과장(최민식)은 후계자 결정에 직접 개입하는 '신세계' 작전을 설계한다. 피도 눈물도 없는 후계자 전쟁의 한 가운데, 정청(황정민)은 8년 전, 고향 여수에서 처음 만나 지금까지 친형제처럼 모든 순간을 함께 해 온 자성(이정재)에게 더욱 강한 신뢰를 보인다.

한편, 작전의 성공만 생각한 강과장(최민식)은 계속해서 자성(이정재)의 목을 조여간다. 시시각각 신분이 노출될 위기에 처한 자성(이정재)은 언제 자신을 배신할 지 모르는 경찰과, 형제의 의리로 대하는 정청(황정민)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데...

케이블 & 위성방송

▶YTN (02)398-8000 ▶스카이퍼펙트 1588-3200 ▶한국케이블 TV방송 협회 060-398-3355

Table with 4 columns: 영화·오락, 스포츠·레저, 뉴스·다큐, 음악·애니.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프로그램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TJB/SBS, CMB, and EBS. Lists broadcast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세종시 문화가 있는 날 “문화공감-四색데이”

27일 방축전 수변공원 생활밀착형 복합문화공간 변모



7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방축전 수변공원이 세종시민의 특색 있는 문화와 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7월 “문화공감 - 四색데이”는 낮 15시부터 매 시간마다 방축전 곳곳에서 버스킹 공연이 진행되며, 저녁 7시에는 메인 공연인 중요무형문화재 11-나호 평택농악의 연주로 더욱 다채롭고 수준 높은 공연이 준비된다.

경기·충청·강원을 아우르는 웃다리풍물의 대표 농악인 “평택농악”은 전문적인 ‘연희패’의 성격과 민간인 ‘두레갯’ 행식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경쾌한 장단과 상모놀

이, 배나놀이, 아찔한 무동놀이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농악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국내외를 넘나들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버스킹 공연은 세종시 교육가정 공연과 우라갈 밴드, 벨리댄스 등등 새롭게 합류하는 팀들로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Show Me The Kick(쇼미더킥)”라는 주제로 열리는 세종시 교육가정 공연은 버스킹 무대를 떠나 메인공연장에서 그동안 갈고 닦아온 기량과 내재되어 있던 예술적 기를 발산할 것으로 예상돼 기대감이 높다. 메인 공연 후에는 무대 앞에서 음악분수 레이저쇼가 이어져 한 여름밤의 더

위를 식혀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의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프리마켓과 예술체험도 15시부터 수변공원에서 개최되며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에서 다양한 먹을거리와 추억을 만들 예술체험을 위한 공방도 운영된다. 일상의 휴식을 원하는 시민들에게는 수변공원에 설치된 수변카페에서 여유를 즐길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 사업을 공동주관하는(사) 예술창작소 이음의 서원주 대표는 “이번 달은 시민들의 참여를 늘리고 더욱 다채로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매달마다 이어오는 문화가 있는 날 방축전 문화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

이 사업은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문화가 있는 날 사업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단법인 예술창작소 이음이 공동주관, 세종특별자치시가 후원하는 2016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거점 특화프로그램으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마다 “문화공감-四색데이”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다.

▲행사문의 044-868-8488(우천시 장소 그대로 직후 돌아오는 토요일 개최) 세종=김정화기자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기육성·씨름대회’ 개최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규)은 7월 19일 논산공설운동장과 논산중학교에서 ‘2016 교육장기육성·씨름대회’와 제25회 충남학생체육대회 지역대표 선발전’을 개최하였다.

육성대회 16종목에 초등부 172명, 중등부 15명이 참가하고, 씨름대회에는 초등부 2명, 중등부 15명이 참가하였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기초종목 우수선수 발굴하여 꿈나무로 육성하고자 초등부 육성대회를 신설하였는데, 첫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단법인 예술창작소 이음이 공동주관, 세종특별자치시가 후원하는 2016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거점 특화프로그램으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마다 “문화공감-四색데이”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다.

▲행사문의 044-868-8488(우천시 장소 그대로 직후 돌아오는 토요일 개최) 세종=김정화기자

‘꿈꾸는 날갯짓’ 치어리딩팀, 이글스파크서 첫번째 날갯짓 펼쳐

한화이글스 치어리더들과 함께 치어리딩 프로그램 선보여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대표이사 황용득)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함영신)가 함께 하는 희망트레이너 “꿈꾸는 날갯짓” 치어리딩팀이 챔피언십이 지난 19일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한화이글스 치어리더들과 함께 치어리딩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한화갤러리아 전 지점은 올해부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연계해

이동 건강 증진을 위한 ‘희망트레이너’ 활동을 진행 중이다.

희망트레이너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3월부터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에서 후원해 활동을 시작한 ‘챔피언십’은 대전지역의 초·중등 여학생 3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3월부터 매주 토요일 대전시 치어리딩협회 전문가들의 지도아래 치어리딩 연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달에는 한화이글스 치어리더들과의 만남을 통해 국내 유명 아이돌 그룹의 음악을 바탕으로 3분간의 합동 프로그램을 완성, 수 많은 관중들과 함께 호흡하며 흥겨운 무대가 됐다.

이번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의 공연은 “챔피언십”의 첫번째 공식적인 무대로 그 동안 아이들의 연습을 위해 많은 격려와 도움을 준 “챔피언십”학생들의 가족과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 친구들 150여명을 초청, 진행했다.

큰 박수와 갈채를 받으며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의 1루측 응원단석에 오른 아이들은 한화이글스 치어리더와 함께 짐작하고 자신감 있게 준비한 율동을 이날 야구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선보였으며 짧은 시간이었지만 야구장을 찾은 관중들은 어린 아이들의 노력에 큰 호응을 보내며 응원해 주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송병배기자

Advertisement for Daejeon Today (대전투데이)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logo.



배재대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대전시 노인복지관 협약 20일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 사무실에서 예비노년층의 사회공헌활동 참여와 교육, 취업 등 사업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지역사회의 나눔 참여와 사회적 효능의 확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중구 용두동 복지만들레 '사랑의 밑반찬 나눔' 행사 20일 동주민 센터에서 저소득 독거노인들의 입맛을 돋우어 건강할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랑의 밑반찬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제6회 우리가족 야구장 데이트' 지난 19일 오후 6시 30분 한화이글스파크(구 한밭야구장)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동부 관내 교육복지 학생·학부모 650여명과 함께하는 '제6회 우리가족 야구장 데이트'를 실시했다.



"어르신들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립니다" 청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결혼 이주여성으로 구성된 '다문화 가족 손 마사지 봉사단'이 지난 19일 운곡면 모곡리 경로당을 방문해 마사지 봉사활동을 펼치고 세계 다른 나라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폐공사, 자원봉사 '한즈온(Hands-ON)' 행사 한국조폐공사는 지난 19일 '한즈온'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천연비누 등 생활용품들 함께 만들어 취약계층에 전달하기 위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산시 둔포면·미용 봉사 활동 지난 19일, 둔포면 신항리 소재 메디케어 요양원(시설장정영)을 방문하여 20여명을 대상으로 미·미용 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는 유경숙(수면미용실), 박정규(산전미용원)봉사자의 미용재능기부와 악스, 물리수 등 후원물품 전달로 진행됐다.

충남대학교-대전지방변호사회-한전 대전충남본부

손잡고 지역사회 위한 봉사활동 나서

충남대와 대전지방변호사회, 한전 등이 손잡고 지역사회 위한 봉사활동에 나섰다.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법률상담소와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지방변호사회는 7월 20일, 충남 보령시 원산도에서 'JUMP Together! 법률·의료·사회봉사행사'를 개최했다.

각 기관들의 직무별 명칭을 따 'JUMP Together' 행사로 이름 붙여진 이번 행사는 충남대 로스쿨과 법률상담소, 대전지방변호사회가 법률 봉사를, 충남대 의과전문대학원 및 충남대병원은 의료 봉사, 한국전력대전충남지역본부



는 사회봉사를 각각 담당했으며, 학부교육선도대학 육성사업(ACE)의 일환으로 학부생(법학

사과 학생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2015년 보령시 삼시도에서 지역민들을 상대로 무료법률 상담과 의료봉사를 실시한 바 있다.

충남대 손잡고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지역 거점국립대로서의 지역민에 대한 봉사와 이를 통한 대학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매년 행사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특히 올해는 법학전문대학원과 협약기관인 한국전력대전충남지역본부와 대전지방변호사회가 참여해 보다 더 많은 지역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 동정 ●

시군직장회장의



이경용
직장새마을운동총
청남도협의회
회장
= 21일
오전 11시 서산시새마을회관에서 시군직장회장의
를 개최.

한국영상대, 고교생 대상

'대학 체험캠프' 개최

한국영상대학교(총장 유재원) 이벤트연출과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캠퍼스 일원에서 고교생을 대상으로 대학 체험캠프를 개최한다.

올해로 15회를 맞은 이벤트연출과 대학 체험캠프는 재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연출하여 고교생들이 입시 경쟁에서 벗어나 대학을 미리 체험하며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행사이다.

이번 대학 체험캠프는 전국 청소년 100여명이 참가해 '인생의 즐거움을 기획하라! GO DreamING'이라는 주제로 교수들의 이벤트 강연, 토크콘서트, 레크리에이션, 물놀이 등이 진행된다.

윤성일 이벤트연출과 학과장은 "이번 대학 체험캠프를 통해 고교생들이 이벤트라는 분야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재학생들도 대학 체험캠프 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를 통해 이벤트 전문가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범기자

온양3동 이현상, 경로당 및

복지시설 수박 전달



아산시 온양3동(동장 전병관)은 지난 18일, 온양3동 행복키움추진단 위원하면서 주민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현상씨가 관내 어르신들을 위해 수박 150통(100만원 상당)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된 수박은 행복키움추진단 및 복지동장 50여명을 통해서 온양3동 27개 경로당과 복지시설에 전달하게 되며 관내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초복을 맞이해서 행사를 계획하게 됐다.

이현상 행복키움추진단 위원은 "올해 여름은 다른 해보다 무더운다고 해서 걱정이다.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후원을 결심하게 되었다"며 "온양3동 행복키움추진단에서 전달하는데 함께 봉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서산농업경영인 가족화합대회 '성료'

900여명의 회원 및 가족들 참여... 화합과 친목 다지는 시간 가져



제25회 농업경영인 가족화합대회가 20일 서산시 농어문화체육센터에서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한국농업경영인 서산시연합회(회장 조정수)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에 900여명의 회원 및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농업경영인회 중앙회장을 비롯해 서산시장 등 각급 기관단체장의 농업·농촌 발전 유공자 29명에 대한 표창식이 있었다.

또한 읍면동별 승부차기, 투호, 제기차기 등 화합경기와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참석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서산=김정환기자

청양군 대치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부녀회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행사



청양군 대치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한창희)와 부녀회(회장 유인식)는 지난 20일 대치면사무소에서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행사를 실시했다.

매년 마을의 어르신들을 초청해 합동생일 잔치를 개최했던 새마을협의회는 올해도 어르신 40여분을 모시고 생신을 축하드리며 이른 무더위로 심신이 지친 어르신들을 위로했다.

한창희 협의회장은 "회원 모두가 자녀 된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



충남도 에너지절약 독서골든벨 대회

에너지공단 대전충남, 홍성내포초등학교에서 개최

한국에너지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천석현)는 20일 충남 홍성내포초등학교에서 '제1회 충청남도 에너지절약 독서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초등학생들이 '에너지절약 독서골든벨 대회'에 참여해 에너지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경연하며, 에너지절약 습관 형성을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충남도 초등학생 4~6학년을 대상으로 사전에 접수를 받아 총 23개교 2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에너지절약 독서골든벨 대회는

사전에 배포한 에너지 관련 도서와 상식자료를 기반으로한 에너지 관련 문제의 퀴즈대회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참가학생의 장기지킴, 에너지 공헌의 전문 공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천석현 본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미래세대의 기능인 초등학생들이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관련 지식을 배우고 경연하며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깨닫고, 가정과 학교,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에너지절약에 실천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한밭대, 소외계층에 디자인 재능기부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 등... 대전경제 활성화 기여

한밭대학교(총장 송하영)가 경제적 어려움 등 열악한 여건으로 광고나 홍보를 하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와 같은 소외계층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기 위해 디자인 재능기부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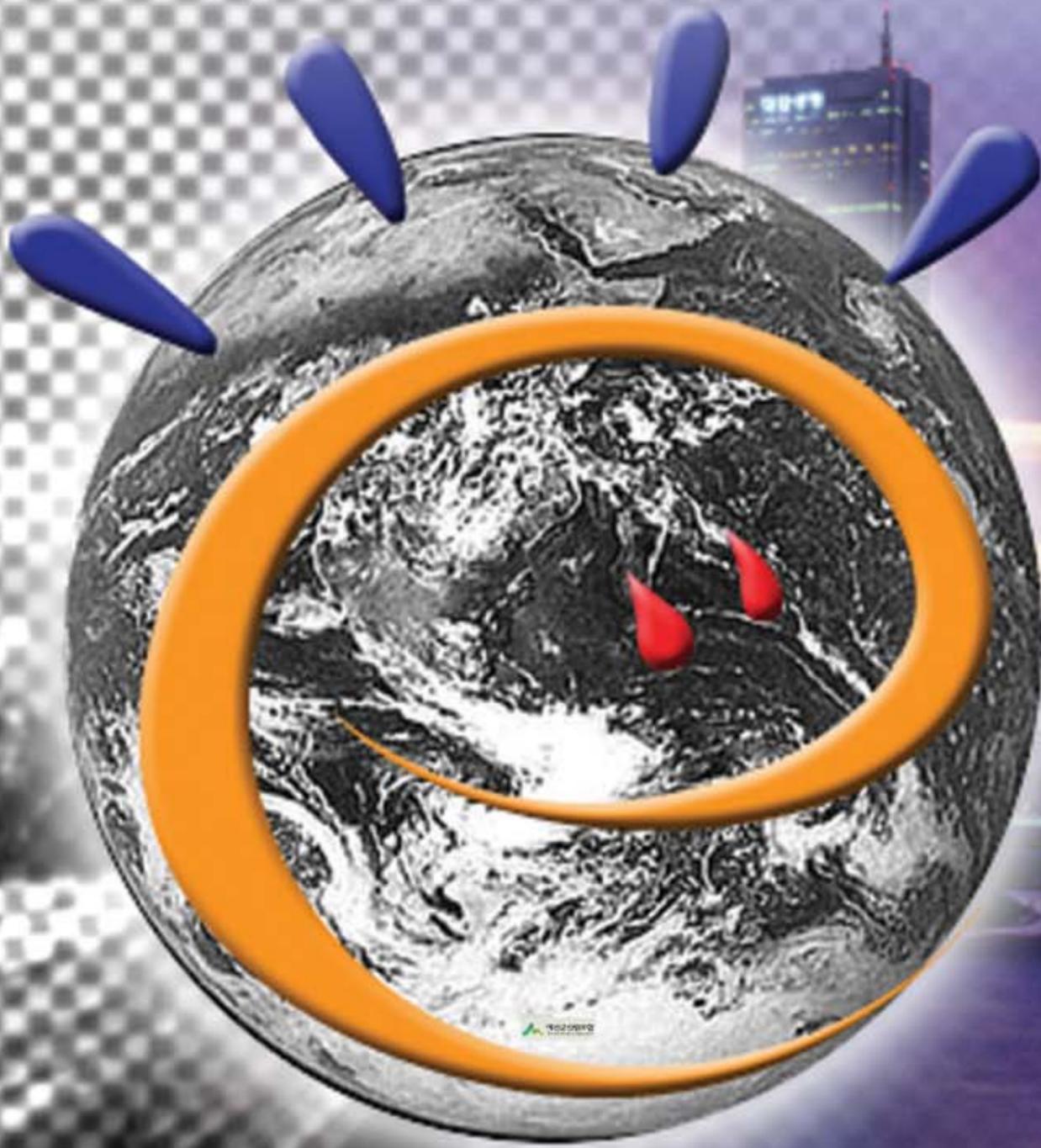
이번 재능기부는 대전시가 시 자체 홍보매체를 활용한 기업 홍보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취지에 공감한 지역 대학 디자인학과 교수 및 학생들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특히, 한밭대 시각디자인학과와

과장 김호 2~4학년 학생 50여명은 업체가 원하는 홍보물 제작을 위해 4주에 걸쳐 수차례 방문과 상담을 통해 사전조사를 실시하는 등 열정을 가지고 참여했다.

그 결과, 올해 5월 대전에서 진행한 공모를 통해 선정된 12개 단체 및 업체의 광고들 중 7개를 한밭대 학생들이 제작했으며, 완성된 광고는 대전 지하철역 광고판 35개소와 대전광역시청 대형 홍보판 2개소에 12월까지 게재될 예정이다.

이정복기자



고유가 시대 이제는 에너지 절약 !

주 관 |



후 원 |

